

디자인 충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전문서열

vol.11 December. 2020

발행

2020년 12월 30일

발행인

윤 황

발행처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041-840-1123

www.cpdcre.kr

기획

박혜은

디자인 및 편집

오병찬 · 강경연 · 김성희

주관부서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제작 · 인쇄

삼성애드피아

CONTENTS

Issue

- 002 위드 코로나 시대 마을의 방향 더 이음_이호 공동대표
008 코로나19 이후의 환경·조경분야 대응 방향 국토연구원_윤은주 부연구위원

Level up

- 014 공공프로젝트에서 공공건축가의 역할 유오에스건축사사무소(주)_정기정 대표

Review

- 026 익숙한 낯섬의 기억, 산업유산의 재발견 청주대학교_박재민 교수
038 제3의 공간에서의 공유가치, LG생활건강_임선희 수석디자이너
에덴 프로젝트 / 커널시티 하카타

Team 당진시

- 050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_전용현 주무관

Focus on 센터소식

- 056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자문위원 워크숍(1, 2차)」 개최
058 충청남도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사업 벤치마킹을 위한
대전디자인진흥원 관계자 방문
059 22014~2020 연구성과

국내 정책동향

- 062 중앙부처
069 광역지방자치단체
086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위드 코로나 시대 마을의 방향¹⁾



더 이음_이호 공동대표

1. 현 팬데믹 상황은 마을공동체의 위기인가?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급진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행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회적 상황이 도래했다. 사람들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 현상들로 혼돈에 빠졌으며, 정부의 여러 정책 또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회정책은 더욱 그러했다. 갑작스러운 사태로 노동자들의 일자리,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았고, 이로 인한 실직의 고통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조그만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직격탄을 온몸으로 고통스럽게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올 한 해 동안, 이 코로나19 사태는 잠잠해지기는커녕 여전히 심각해졌다.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기술적 대안이 사태를 종식시키는 데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한다. 심지어 그 후에도 우리가 기존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다. 그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의 발생이 결코 우연에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 이 글은 화성에서 개최된 「전국 지속가능발전대회」와 인천의 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해 작성한 것임

이번 사태의 핵심은 코로나19가 지금까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벌여온 이기적 행위에 대한 자연의 반격이라는 점에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이를 비롯해서 새로운 변형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이러한 현재가 우리 미래의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포스트(post) 코로나와 관련한 대처 방안 및 대안 등을 논의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할 것은 바로 ‘위드(with) 코로나’다.

전례 없는 이 사태로 인해 모두가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핵심은 가급적 모이지 말라는 것이다. 마스크와 비대면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갓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어른으로서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사람의 일상은 매우 다양한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서로 만나지 않고 홀로 살아가기 어렵다. 여러 비대면 방안들이 결국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확인한 바 있다.

공동체로서의 마을도 이런 사회적 현상과 분위기 속에 존재한다.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할 여유도 없이 팬데믹으로 나아간 코로나 사태로 그간 활발히 성장해 오던 마을 활동도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1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형성하고 강화·확대하려는 마을공동체 활동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 비대면을 전제로 ‘마을공동체’가 성립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작금의 코로나 사태가 마을 만들기에 있어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과 회의가 오히려 마을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된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최근의 마을공동체 활동 현상을 보면,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다행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정부 정책으로 마을공동체에 예산이 투자되기 시작하면서 마을과

공동체의 본질이 점점 흐려진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에 투자된 자원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누가 이 과정에서 사회적 기득권을 확보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거리가 되기도 했던 지난 몇 년 동안의 과정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초유의 사태로 잠시 멈춤을 경험하는 이 시기에, 과거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추스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때,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는가? 당연히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2. 마을이 마을을 돕는다는 원리

다행히 코로나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았던 여러 마을은 그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실천하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내부의 문제에만 골몰했던 마을들이 가장 크게 재난의 피해를 본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러한 모습은 코로나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대구에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할 때 대구의 마을들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전남에서도 의료를 포함한 각종 지원 활동을 펼쳤다. 또 어떤 마을공동체에서는 마스크를 제작해 어려운 이웃이나 공적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는 이웃들,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지역사회의 자립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강화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함께 더불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게 재설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계기를 충실히 활용한다면, 마을 만들기에 있어 코로나 사태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자립적 마을공동체란 사람들이 작은 근린의 이웃끼리 호혜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상호부조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마을의 공동체적 상호부조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적으로 ‘시민 자산화’, ‘마을 기금’ 등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보다 충분히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호부조적인 공동체 관계망을 형성하고 강화·확대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특정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마을공동체 스스로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형성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사태와 같이 사회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문제들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립적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공동체가 갖는 사회적 대안으로서의 의미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소규모 공동체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 재편성하기

앞서 제시한 이러한 대안은 비단 ‘마을 활동에서의 변화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사회 전반의 관계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의 거점인 학교도 재정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지금의 방향에서 전면 탈피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과 같이 학생 감소에 따른 학교 간 통폐합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작은 학교 중심으로 교육 기반을 전면 재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는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만들어진 대규모 학교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잘 보여줬다. 한 명의 학생이 감염되면 다른 많은 학생의 학습권은 전면 유보된다. 이를 참작할 때, 작은 규모 학교 중심의 교육으로 재편하는 것은, 코로나 등의 전염병 사태에 대응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감염 가능성의 범위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적은 인원을 토대로 구성원 간 친분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등의 갈등이 완화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가 소규모일수록,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한을 갖고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교는 지역사회 공동체 관계망의 핵심적 역할까지도 해낼 수 있다.

이처럼 마을 중심의 사회적 대안은 특정 영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 분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상은 최근 주목받은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은 취약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덴마크에서는 ‘삼퐁신드(Samfund-공동체, Sind-마음)’라는 가치와 개념이 사회적 대안으로 각광받는 중이다. 삼퐁신드 정신은 공동체적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위를 일컬을 때 주로 사용된다. 이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과 계층이 사회적 연대를 통해 위기에 처한 사회와 사람들의 연결망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이자 노력이다.

한편 우리는 지금까지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혼란과 사회적 불안을 오로지 꼼꼼한 방역 체계 구축과 사회적 거리두기(실제로는 물리적 거리두기) 중심으로 극복해왔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체 중심의 지역사회 운영 체계를 통해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성공적 방역국으로 불리는 쿠바를 통해서다.

쿠바는 조그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왔다. 쿠바는 의료체계만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매개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 간 공동체적 관계가 매우 긴밀한 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제보쇄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상호 긴밀히 연결하려 협력해왔다. 코로나 사태에서 방역 등의 노력 또한 소규모 지역주민들의 긴밀한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공공의료체계 속에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이들은 다른 어떤 부유한 나라들보다도 성공적인 코로나 극복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공공의료체계 확대·강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이다.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고려한다면 공공의료체계 자체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공공의료체계 확대·강화가 지역 거점마다 대형 공공의료 병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지금과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쿠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동체적 관계망에 기반한 소규모 공공의료체계를 지역사회 단위에 구축하는 것은 전염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 주치의 제도’를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의 보건 의료료를 질적으로 향상하는 대안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를 공동체로서의 마을로 강화하는 것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이제는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해 자립적 생활 근거, 즉 교육, 의료, 소득 및 소비 등의 일상생활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 정도 영위될 수 있는 단위를 만들고 강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로서의 마을 활동이 지닌 의미는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획과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상호부조 관계망을 사회적으로 형성·강화하는 마을 공동체

이처럼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형성하고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립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 폐쇄적 지역사회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동체로서의 마을은 결국 사회적 관계망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때의 ‘마을 활동’은 조그만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동체들이 자급적 기반을 바탕으로 상호부조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서로를 도우려는 지향성을 지니게 된다. 이는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회적 움직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의미를 더욱 확산하고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실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사회적 움직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마을 활동이 그 자체로 마을과 마을 간 상호부조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굳이 과제라 표현하지 않더라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성장한 공동체 의식이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코로나 사태를 통해 배운 바 있다. 즉, 공동체로서의 마을은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이들, 특히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마을들과도 상호 호혜적 관계망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개방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강화하자는 것이 우리의 마을 만들기 핵심이다.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확대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로서의 마을 간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는 이제 일상화된 재난 앞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과 생활은 물론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 우리가 직면한 절실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과정의 핵심은 다양한 자립적 공동체를 만들고, 이들 간의 연결망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위기는 마을 활동에 있어 위기이자 기회라 할 수 있다. 위기는 이웃들과의 만남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 강화하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마을 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다. 그리고 이 기회는 단지 마을 활동에서 만의 기회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안을 실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마을 활동의 기회는 특정한 일부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라 할 수 있다.

마을 활동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소규모의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적 관계망을 사회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들(교육, 의료, 문화, 생산과 소비 등)이 경쟁력과 효율성이 아닌 소규모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 운영 체계를 재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마을들이 자신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동시에 이웃 및 이웃한 마을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자구적 결사체로서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환경·조경분야 대응 방향¹⁾



국토연구원_윤은주 부연구위원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이슈에 많은 사람이 피로를 느낀다. 처음에는 만남과 활동의 제약이 물리적으로 다가오면서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떤 이들은 분노를, 또 어떤 이들은 무력감을 느낀다. 이 상황을 이미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가파르게 상승하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였다고 자축하던 때가 엇그제인데 오늘은 다시 3단계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 과거의 사진이나 동영상 속에서 발견한 마스크 없이 대화하고 먹고 마시는 모습이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생경하다. 최근 영국에서 서방국가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면서 이 사태가 조만간 종식되리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가 제시하는 전염병의 주기적 대유행설을 생각하면 코로나19는 전초전에 불과하며, 제약받는 지금의 일상이 뉴노멀(new normal)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가 남긴 긍정적 시그널에 주목하기도 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은 K방역,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한 전 국민의 자발적 협력과 빠른 인식 전환이 기후변화와 같은 오랜 환경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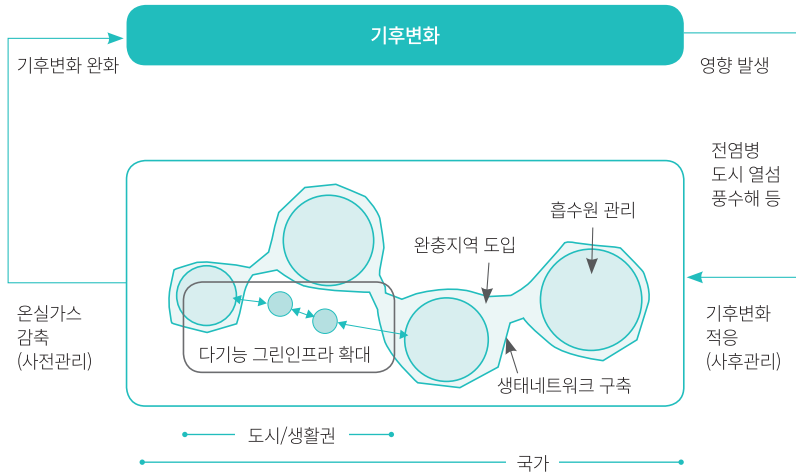
1) 해당 원고는 조경정보지 Landscape Review 36호에 실린 ‘코로나19 이후의 조경분야 대응방향’ 원고 내용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동안 사람들은 감염 위험이 낮으면서 신체적·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오픈 스페이스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도시 속 그린인프라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인간이 밀렵한 박쥐로부터 가축으로 옮겨지며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자연을 무분별하게 착취하는 행위가 결국엔 인간에 대한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혹자는 코로나19가 도시 환경 개선을 10년 이상 앞당긴 계기이자 시발점이 되었다고 기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응 방향 제시

이렇듯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 전반, 더 나아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필자는 미력하나마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 방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근의 변화와 관련한 국가, 도시, 생활권 수준에서의 환경·조경 분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가 수준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현상 완화’ 및 ‘생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후변화는 새로운 전염병 발생 가능성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의 온·습도 변화는 새로운 전염병 출현 가능성(영구 동토층 해빙 등)과 기존 전염병 확산 범위(모기 등 매개 동물의 서식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 상황처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이 ‘이미 발생한’ 경우는 얼마나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전염병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전자가 사후(事後) 관리라면 후자는 사전(事前) 관리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의 완화가 바로 사전관리에 해당한다. 최근 IPCC는 폭염,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의 재해에 대한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지구 온도의 상승을 1.5°C 내로 제한해야 함을 보고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산림 등의 그린인프라가 온실가스의 유일한 흡수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 관리와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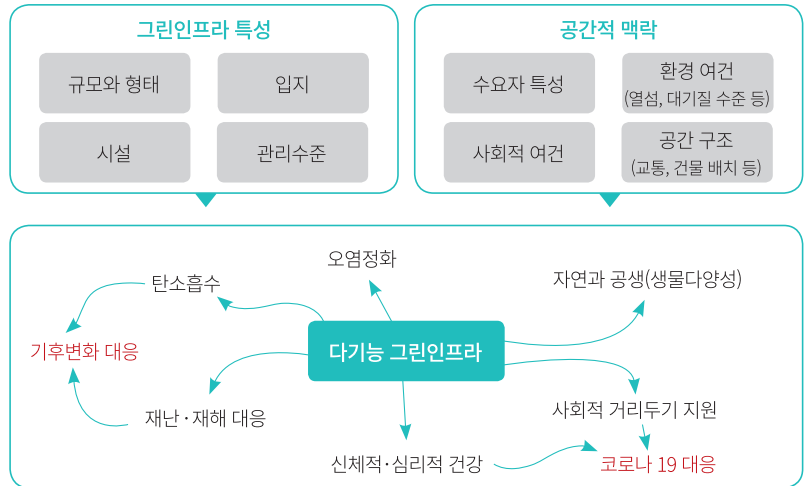
▲ [그림 1] 국가 및 도시/생활권 수준에서의 환경·조경분야 대응 방향
출처: 저자 작성

또한 국가 수준에서 자연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는 한편,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복원함으로써 생태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메르스, 에볼라, 사스 등 과거 치명적이었던 전염병 대부분이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에서 기인하였다.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거나 착취하는 인간의 행위는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접점을 증가시켜 새로운 전염병 출현 원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다양한 자연·반자연 자원을 ‘야생동물 주요 서식처’ 및 ‘인간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분리해 보전과 이용에 있어 내용 및 강도를 달리해야 한다.

더불어 서식처 간 생태적 연결성을 높임으로써 종 다양성을 증진하고 야생동물과의 접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토지이용과 기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서식처 가장자리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이때 서식처 간 이동통로를 확보하여 연결성을 높인다면, 다양한 동식물이 스트레스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지적인 종의 멸종과 야생동물의 정주 공간 출현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시 수준에서는 생활권별 충분한 다기능 그린인프라 확보를 제시하였다. 그린인프라는 다양한 위계의 생태축에서부터 산림, 도시공원, 건축물 녹화, 가로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 생물 다양성의 기반인 동시에 도시민의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의미하는 ‘인프라’로서 표현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도시공원은 방문객이 50% 이상 증가하고, 단풍철 설악산, 지리산 등의 명산에는 각지에서 모여든 등산객이 빼곡했다고 한다. 외부공간이 실내 밀폐 공간보다 덜하다고는 하나, 방문객 밀도가 높아지면 감염 위험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 생활권 단위에서 그린인프라가 충분히 공급된다면 도시민은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녹지를 보고 즐길 수 있다. 대기정화, 열섬 완화, 도시경관 개선, 종 다양성 증진 등 그린인프라가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다. 따라서 그린인프라의 확대는 전염병을

포함한 다양한 위해로부터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된다. 다른 여느 기반시설과 마찬가지로 그린인프라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생활권 단위의 적정 공급량을 계획하고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활권 별 그린인프라 현황과 수요, 물리적 공간 특성을 파악하는 게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추가 확보해야 할 그린인프라의 양과 그 적합한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 [그림 2] 다기능 그린인프라 조성 및 효과 모식도
출처: 저자 작성

그린인프라 확대는 제도적, 학술적 측면에서 꾸준히 제시되었으나, 비용, 도시의 구조적 문제, 법 제도의 한계 등으로 그 실현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확보한 도시의 그린인프라가 최대의 혜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서식처 기능, 재해 완화 기능, 이용 및 심미적 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기능 그린인프라이다. 예를 들어, 야생동물 출몰 지역을 중심으로 완충 녹지를 도입한다고 할 때, 녹지대의 폭, 형태, 수종 등의 계획에 대기오염 정화 및 시각적(심미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접근성 또는 방재력이 우수한 도시공원이 재난·재해의 피난처로서 기능하도록 보완할 수도 있다. 가로수 수종과 식재 간격, 하부구조 계획 시에도 보행자의 열 쾌적성, 도시 물 순환 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동안 보호지역, 녹지, 생활권 그린인프라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나, 개발 관성에 의해 실제 국토 및 도시 환경이 개선된 정도는 미약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환의 시기를 맞이한 지금, 환경·조경 분야는 이를 계기로 사회가 요구하는 친환경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기후변화 완화, 녹지 연결성 증진, 다기능 그린인프라 도입은 단순한 녹지의 양적 확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가 역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도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축적 및 홍보함으로써 또 다른 도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LEVEL UP

공공프로젝트에서 공공건축가의 역할



유오에스건축사사무소(주)_정기정 대표

공공건축가는? 그 역할은?

「건축기본법」은 공공건축디자인의 품격¹⁾과 품질²⁾ 향상을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건축물 건축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더불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전문가가 공공건축 기획업무에도 참여할 수 있게 법제화되었다. 이에 충남을 비롯한 서울, 부산, 인천 등 7곳의 광역자치체와 충남 당진시를 비롯한 10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공건축가’란 명칭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다. 그러나 공공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로 건축사, 건축 도시 및 조경 관련 기술사,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업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공부문 건축 디자인 업무기준」과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
- 1)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건축기본법 제3조(정의) 5항
 - 2)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건축기본법 제3조(정의) 6항

‘민간전문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이 위촉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건축 및 건축 관련분야 전문가’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공건축가’를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로 정의하였다³⁾.

업무기준에 따른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기획 참여, 설계 참여,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등의 조정·자문이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공공건축은 주로 작은 규모의 건축물이다. 이러한 소규모 생활 인프라 시설물의 생산과정은 사업 주체의 기획의도나 설계자의 디자인 의지와 관계없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사람이 건축을 만들고 다시 그 건축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유명한 명언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 관행과 관례에 따라 생산된 많은 건축물에 의해 우리는 다시 만들어진다.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자와 설계자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시설물에 적용해나갈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질문에 이제는 행정과 전문가가 답해야 한다.

공모지침서 검토

필자는 2019년 3월에 진행된 「제1기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모집」을 통해 그해 7월 공공건축가로 위촉되었다. 필자가 맡은 사업은 도지사의 주요한 정책사업 중 하나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주관한 사업으로, 충청도 정책자문회의가 ‘2020년 최고의 충남형 선도모델’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필자가 이 사업을 맡게 된 것은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6년(1~3기) 동안 활동하면서 SH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공임대주택과 단독주택을 설계한 경험이 많은 것을 추천위원회가 고려한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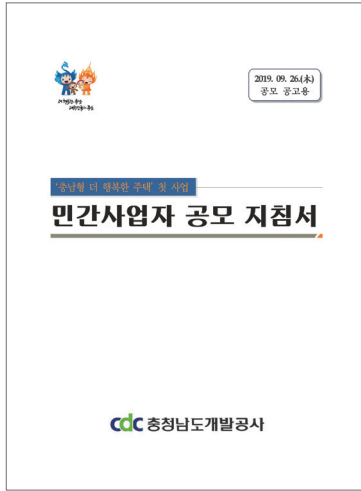
3) 국토교통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 기준



▲ 현재 공사 진행 상황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은 기공식을 거쳐 현재 지하층 공사 중에 있으며, 공사 진행률은 약 21%(11월 말 기준)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 지상 8~25층 아파트 9개 동으로 전용면적 36㎡(1개 타입) 60세대, 44㎡(1개 타입) 180세대, 59㎡(5개 타입) 360세대의 총 600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 사업 위치도⁴⁾



▲ 공모지침서 표지⁵⁾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부대시설도 구성되어 있다. 위치는 충남 아산시의 아산배방월천지구 공동주택 2BL으로 2022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1,260여억 원이다.

사업주관을 맡은 공사와 사업부서인 충남도청 건축도시과는 설계공모를 거쳐 설계안을 확정된 후 시공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사업자의 창의력을 활용한 품격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공사 여건 그리고 설계공모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주거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방식이었다. 이 공사에서 공공건축가로서의 첫 자문업무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 검토였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단어가 보여주었던 공간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공모안이 제출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했다. 특히 거주자를 신혼부부로 한정했기에 양육이 중심이 된 질 높은 거주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에 따라 아이가 중심이 되는 단지는 땅과의 접촉이 중요하며(외부공간 구성·배치계획), 층간소음 해소 및 아이 성장을 고려한 다양한 공간구성(평면·단면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자문하였다. 또한 외부활동이 많은 시기인 점을 감안해 다양한 이동기구(유모차, 자전거 등)의 수납까지 고려하는 계획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신혼부부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설 프로그램을 민간사업자가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지침서는 사업 주체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건축물을 얻고자 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의사표시의 서류이다. 이것을 보며 제안자는 사업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판단하여 계획안을 제출한다. 관행처럼 작성되는 일반적인 공모지침서로는 사업자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안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이것이 지침서에 잘 표현된다면, 사업의 50%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제안서 검토

본 사업에 기술제안서(이하 ‘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2개 회사로, 계룡건설산업(주)컨소시엄과 한신공영(주)컨소시엄이었다. 제안서를 평가하기 전 기술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제출된 결과물을 확인하였다. 계획안이 아닌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었고, 평가는 별도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하였기에 필자가 확인하는 내용은 주로 계획안의 기술적인 부분이었다.

우선 제출물의 종류, 형식, 부수가 정확한지 그리고 계획안이 제반 법령 및 공모지침서의 준수사항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계획안은 각 컨소시엄의 구성사인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했지만, 법의 적용과 해석에 다름이 있을 수 있고, 추후 사업 진행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그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4) 자료 :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5) 자료 : 충청남도개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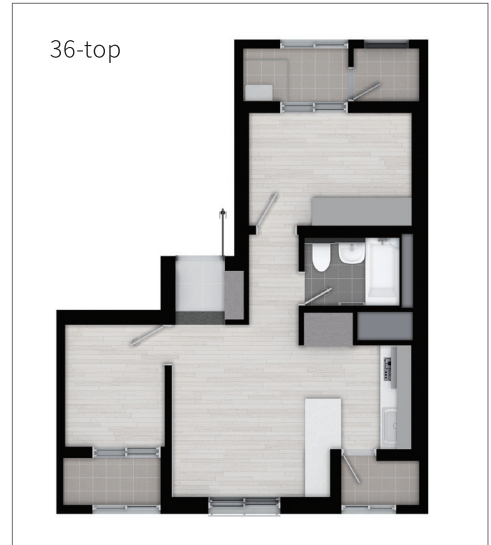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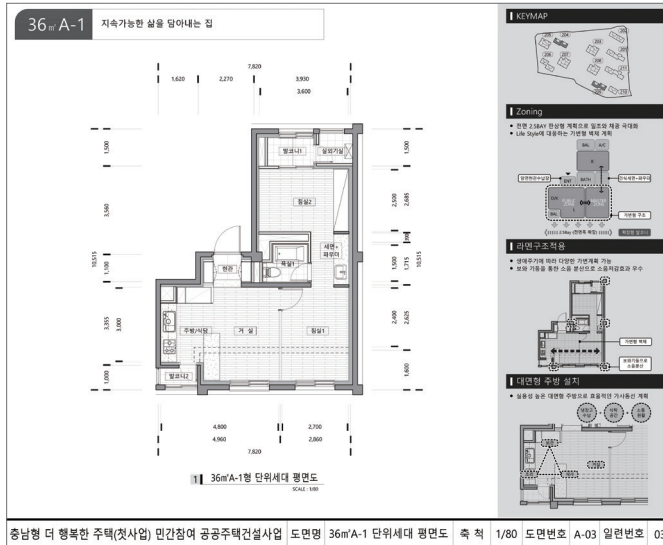
▲ 제출된 계획안의 조감도⁶⁾

공모의 심사단계에서 주로 제기되는 문제는 공모지침서 상의 표현형식이다. 같은 내용의 계획안도 표현에 따라 달라 보이기 마련이며, 제출자는 이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한다. 감점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표현에 신경 쓰기도 한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이 있듯이 눈에 잘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기술심사의 결과는 본 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본 평가에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민간사업자로 한신공영(주)컨소시엄이 결정되었다.

사업목적을 고려한 계획안의 전반적 검토

협상자로 선정된 한신공영(주)컨소시엄의 설계자는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다. 우선 제안된 단위세대의 평면계획,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등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단위세대 유형은 총 9개 타입으로 36㎡ 1개, 44㎡ 2개, 59㎡ 6개다. 해당 단위세대의 평면계획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기술적인 부분까지 세밀하게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침실, 거실 등 공간의 이동과 사용에 어색함과 불편함은 없는지, 주거시설 내 복도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였다. 총 세대수에 비해 다양한 주거 유형이 제안되어, 신혼부부들이 다양한 삶의 형태로 삶을 꾸려가며 거주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6) 자료 :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 단위세대 평면도 변경 전후 이미지⁹⁾

한편 사업 규모에 변화가 있었다.전체 세대수의 변동은 없었고, 유형별 세대수를 조정해 주거 규모를 증가시켰다. 36㎡는 180세대에서 60세대로, 59㎡는 240세대에서 360세대로 늘려 단위 세대의 거주면적이 큰 것을 더 많이 공급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반면 늘어난 주거 규모만큼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는 줄었다. 이에 따라 주동(往棟)⁷⁾ 수와 근린생활시설 배치에 조정기 있었다. 이에 따라 전체 배치계획의 아이디어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자문하였다.

요즈음 주거계획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은 전자제품이다. 10여 년 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가전용품이 등장했으며 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층은 이러한 제품의 활용에 적극적이다. 주방에서는 식기세척기, 광파오븐, 젓병소독기, 에어프라이어, 토스트기, 전자레인지, 와인냉장고 등 정말로 많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용도실에는 건조기가, 그리고 침실에는 스타일러 등이 놓인다.냉장고와 세탁기는 크기도 커지고 성능도 향상되었다. 또한 통신의 발달로 주거에 대한 제어도 원격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담아낸 계획인지 아닌지에 따라 주거 만족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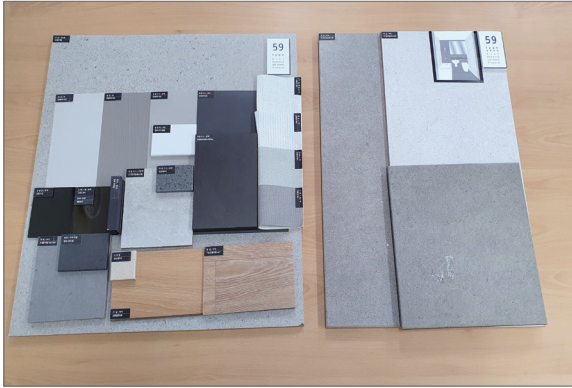
급격히 달라진다. 더불어 공간을 차지하는 이러한 전자제품을 위한 전력공급(콘센트), 급/배수 등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시스템을 갖추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영향으로 점차 '전자제품'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처럼, 미래의 주택 또한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⁸⁾와 같이 변화할 수 있기에 기반시설에의 반영이 중요하다.

주거의 지속성은 부대시설에 달려있다. 부대시설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마을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어떤 시설물(나무, 정자 등)을 갖고 있었기에 집단의 기억이 되었으며, 그 집단기억은 마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래서 근래의 공동주거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커뮤니티 시설의 규모와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주동 배치를 하고 남은 영역에 커뮤니티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커뮤니티를 계획해야 한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을 제공해야 하며, 거주 시민들이 이용·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어 공동체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거주하는 건물 등

8) 근대건축의 4대 거장인 프랑스 건축가 르 꼬르뷔제는 자신의 저서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에서 주택을 '살기 위한 기계'로 언급하였다.

9) 자료 :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 샘플보드 사진¹⁰⁾

작은 것에 신경 쓰자.

공모지침서에는 주거에 사용할 세부적인 마감 재료, 위생기구 및 수전, 등 기구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있었다. 마감 재료 등에 관한 결정은 공사를 포함한 사업관계자가 함께 하는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시공자 쪽에서 준비한 샘플 보드 및 샘플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근대건축의 4대 거장인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말로 유명한 “God is in the detail(신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영어 속담이 있다.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것에 있다는 말이다. 특히 주거에서 사람 눈이 가고 손이 닿는 곳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서로 다른 재료가 만나는 곳, 가구와 벽지가 만나는 곳, 타일과 문틀이 만나는 곳! 이처럼 무언가 서로 만나는 부위의 처리는 도면으로 표현되기가 힘들다. 따라서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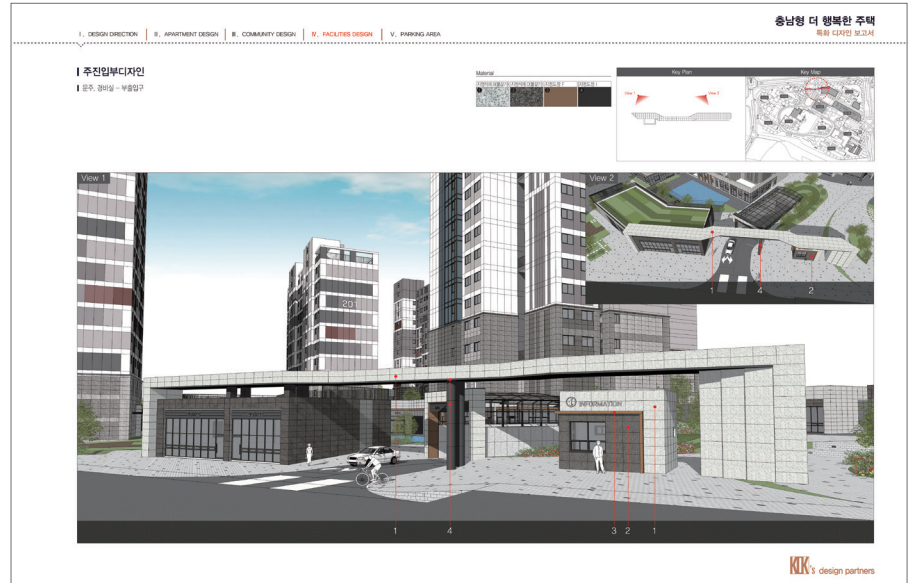
▼ 디테일 관련 ①, ②¹¹⁾

제1차 실무협의체 협의결과 조치계획 ①	
■ 하자발생 우려부분 철저 시공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접합부는 본 시공전 견본세대 시공 실시 후 작업 진행	■ 화장실 타일 접합부 시공방법 수립 화장실 타일의 접합부는 녹 발생 등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PVC물당으로 시공예정
■ 철저한 시공방법 수립 및 전 세대 상세한 시공당부 마감공사 투입 전 견본시공 후 통행회 실시하여 철저한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겠음	
▶사원부스 직물분위 ▶편다이커분위 직물분위	

한신건설(주) (주)우석건설 2 중남영 더 행복한주택

제1차 실무협의체 협의결과 조치계획 ②	
■ 문선과 천장사이 틈새부분 마감처리 방안 수립 람마 시공예정 및 통행통제는 견본세대 시공시 세부 안을 제시하여 협의를 거쳐 진행 할 예정	■ 주방타일과 벽타일 접합부 적합한 물당처리 시공 타일과 접하는 부분은 문틀,기구 등과 적절한 단차유지 및 시공예정
<문선 상부 마감 상태>	<문선 상부 마감 상태>

한신건설(주) (주)우석건설 3 중남영 더 행복한주택



▲ 최종 문주 디자인 이미지¹²⁾

에서 시공자의 관행적인 기술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무언가 멋있고 비싼 집은 이러한 세부적인 처리에 설계자의 의지(디자인 철학)가 투영된 경우가 많다. 더불어 비용도 증가한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료가 사용되면 민간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와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획하였다고 생각한다. 그 본질적인 차이는 재료에도 있지만 사실 사용자를 고려한 세부적인 시공의 수준에 있다.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 쓰는 정성스러운 시공이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얻어낼 수 있다.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공사의 관리와 감독을 뛰어넘어 설계자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생산한, 즉 디자인 중심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비로소 ‘공공임대주택’의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스케일을 고려한 주거환경

‘눈높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학습지 회사가 있다. 이 브랜드는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키 큰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과의 현장 수업을 위해 그림 앞에서 키를 낮추고 그림을 올려다본 것에서 유래하였다. 주거에도 보는 사람의 눈높이를 고려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은 아파트 주동의 높은 부분이 아니다. 공간 분위기는 우리 눈높이에서 보이는 사물의 특성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시공 시 저층부 디자인과 조경에 신경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는 사람의 눈높이 즉, 스케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10) 자료 : 한신공영(주)

11) 자료 : 한신공영(주) (실무협의 1차 조치계획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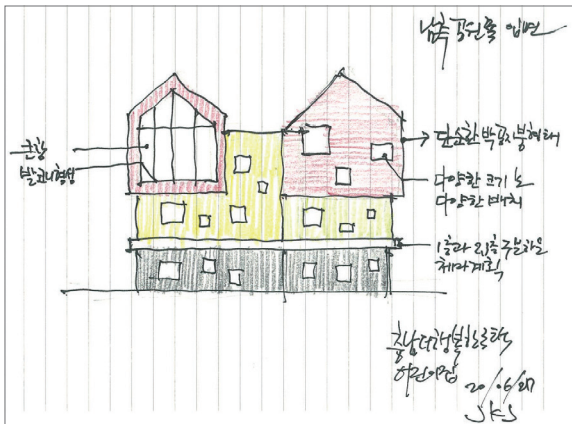
12) 자료 :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신혼부부가 주된 거주자로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는 공간이다. 아이들의 생활환경인 외부공간은 아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업의 경우, 부대시설 계획은 특화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디자인 회사가 계획한다. 이곳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파트의 문주(정문) 및 관리사무소 디자인, 어린이집과 노인정 계획 그리고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등의 외부 환경물 디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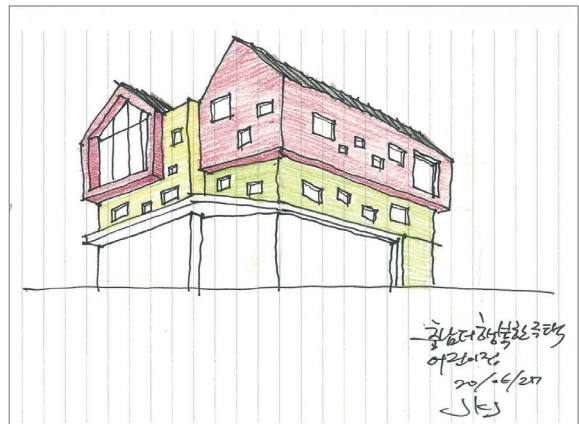
사용자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환경조성을 위해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여러 안을 갖고 논의하였다. 상징적이며 정갈한 모습으로 돌이 지닌 무게감을 명확히 보여주는 문주 계획, 적절한 스케일로 조정되어 설치되는 저층부의 마감재 계획, 그리고 원경에서 주로 보이는 주동의 분절된 색채계획 등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제안되었으며,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어린이집은 특별히 더욱 신경을 써서 계획해야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함께 건축되기에 운영자와의 협의는 물론이고, 관련 법 조항 등을 고려한 평면계획이 될 수 있게 자문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이라는 이미지를 구현할 외관 계획 등과 관련해서도 참고 사례나 스케치를 기반으로 자문하였다.

▼ 어린이집 스케치 1



▼ 어린이집 스케치 2





▲ 어린이집 사례 사진¹³⁾

우리가 멋지다고 하는 도시는

우리는 로마, 프랑스, 비엔나의 도시를 보며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서울 북촌의 한옥밀집지역을 경험하며 감탄한다. 좋은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자신의 기호와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다고 하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대체로 오랜 시간을 담고 있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 같다. 많은 이들의 추억과 기억을 담고 있는 그 시간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랜 시간을 유형적으로 형태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박제화된 도시를 우리는 가면의 도시라고 부른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그 자체로 많은 이들의 추억과 기억이 되었으면 한다. 박제화된 장소가 아니라 한 땀 한 땀의 정성이 담겨있는 공간이기를 희망한다. 공사와 사업관계자, 거주자 모두가 함께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이 정성스러운 과정에 참여할 때 반가움과 애착이 생긴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이 쌓일 수 있도록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 아파트의 이름 또한 단순히 물리적 대상에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그곳이 모두에 의해 장소 또는 공간으로 불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13) 출처 : archdaily.com

REVIEW

026 익숙한 낯섬의 기억, 산업유산의 재발견

박재민 교수

038 제3의 공간에서의 공유가치,
에덴 프로젝트 / 커널시티 하카타

임선희 수석디자이너

익숙한 낯섦의 기억, 산업유산의 재발견



청주대학교_박재민 교수

요즘 들어 조금은 생경한 폐공장, 창고, 정미소 등을 재활용한 운치 가득한 카페, 공원, 미술관 등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알쓸신잡’이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소개로 잘 알려진 ‘조양방직’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거해야 할 낡은 시설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히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이용되고 있다.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중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을 산업유산이라고 말한다. 산업유산의 특징은 기존 문화재와 달리 보존 대상임과 동시에 활용 대상이라는 점이다. 사람들이 산업유산에 주목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은 아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에서조차 1950년대에서야 비로소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으며, 1978년 비엘리치카 소금광산(Wieliczka and Bochnia Royal Salt Mines)을 시작으로 90년대를 넘어가면서 세계문화유산의 중요한 보전 대상으로 자리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전통 유산은 이미 대부분 보전하고 있으며, 새롭게 만들 수 없다. 이 점을 감안하면 다수의 근대 이후의 산업유산들이 앞으로 인류가 보전해야 할 대상이 될 거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근대 산업화가 일찍이 진행된 일본도 1970년대부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이와이 은광(Iwami Ginzan Silver Mine and landscape, 2007)이나, 최근 논란이 되는 군함도로 알려진 하시마섬을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군: 철강, 조선 및 탄광(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2015)으로 보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다수의 산업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조양방직은 1937년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50여기의 직조기를 갖춘 방직공장으로 설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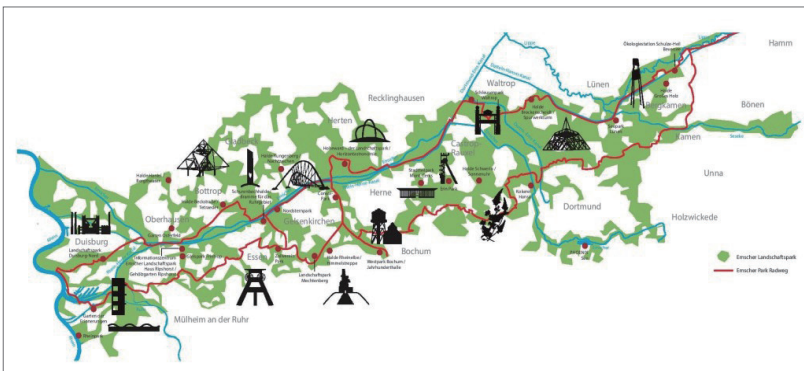


▲ 카페로 변신한 산업유산, 조양방직 실내 전경

이처럼 낡은 산업시설은 산업유산으로서, 그리고 도시재생의 중요한 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산업유산의 역사성 보전에 여전히 소홀한 편이며, 그 활용도 주로 문화 예술과의 접목 사례에 집중해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금 다른 시선에서 산업유산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충남의 대표적 산업유산도 다시 바라보고자 한다.



▲ 산업시설을 그대로 이용한 뒤스부르크 노드 공원 전경



▲ 엠서 공원 및 주요 프로젝트 지도²⁾

도시를 살리는 산업유산, IBA 엠셔 공원 프로젝트

가장 매력적인 산업유산 활용 사례로 독일의 엠셔 공원 프로젝트 (International Building Exhibition Emscher Park, IBA)를 뽑을 수 있다. 이곳은 사회, 환경, 문화, 경제를 포괄한 창의적 도시재생의 대표적 사례로 세계가 주목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근대 산업화가 진행되면 초기 활발했던 광산업과 제조업 주도의 2차 산업 중심 구조는 재편되고, 이에 따라 과거의 화려했던 산업도시는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지게 된다. 이는 인류문화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일 것이다. 독일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여러 도시에서 펼쳐졌다. 라인강이 흐르는 엠셔 지역도 여기에 해당한다.³⁾ 20세기 초 라인강 주변은 수많은 광산, 제철소가 건설되면서 유럽 최대의 광공업 거점지로 명성을 날렸다. 하지만 화려했던 이곳도 80년대 중반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검은 광산, 즉 산업 쇠퇴의 상징적 장소로 변모하였다. 산업화로 인한 오염으로 강은 검붉었으며, 실업을 이 치솟는 등 지역 경제는 심각했다. 그러나 노르트 라인 베스트팔렌 주 정부(North Rhine-Westphalia)는 기존 타 도시처럼 상징적 건축물이나 새로운 도시로 재건축하던 선례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 산업화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공원(Green)을 배경으로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친환경 문화예술도시로 재생할 것을 선언하였다. 도시 전체를 지역의 소중한 '산업유산'으로 이해하여 장소성과 역사성을 담은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장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공원'이란 넓은 그릇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다.

2) 출처 : www.emscherlandschaftspark-blog.de

3) 사실 독일의 엠셔 지역은 한국민에게도 친숙한 장소이다. 과거 한국의 수많은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파견되었던 곳이다. 한국의 '한강의 기적'은 바로 '라인강의 기적'을 차용한 말이기도 하다.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뒤스부르크 노드 공원

엠서 공원의 프로젝트는 하나가 아니다. 이곳의 면적은 무려 800km²이며, 연결된 라인강은 80km에 이른다. 이곳에서는 100여 개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뒤스부르크 노드 공원(Landschaftspark Duisburg-Nord)은 이중 가장 창의적이고 대표적인 프로젝트 사례다. 원래 석탄과 철광석을 채굴하던 시설로 1985년 이후 방치되었으나, 1991년 이곳에 대한 국제 설계공모전이 진행되었다. 독일의 대표적 조경가인 Peter Lotz와 Partners는 여타 설계안과 달리, 낡은 산업경관이 간직하고 있는 장소의 혼(Spirit of place)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회상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기존 시설물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그 장소가 제공하는 장소의 흔적과 기억을 설계 요소로 이용하였다. 콘크리트 벽은 암벽 등반장으로, 가스탱크는 스쿠버다이빙장으로, 옛 건물은 레스토랑과 숙박시설 등으로 재생하였다. 특히 공업화로 오염된 수질과 토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물정화기법

▼ 무대가 된 옛 철광석 주괴⁴⁾



▼ 오염된 수공간과 식물을 이용한 치유, 뒤스부르크 노드 공원⁵⁾





▲ 지역의 활발한 커뮤니티의 장 듀스브르크 노드 공원

(Phytoremediation)을 도입하였다. 기계적 토양 계량이 아닌 식물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오염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교육적·생태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였다. 오염된 과거의 하수도, 습지와 연못은 이제 부지의 오염물을 제거하는 장치로 작동하게 되었다. 더불어 이곳은 지역 문화예술과 커뮤니티의 장으로 변신하였다. 야외 곳곳에서 라이브음악 공연, 영화 상영, 댄스파티가 열리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공연도 열린다. 밤이 되면 산업 시설을 배경으로 레이저 쇼가 펼쳐지며 과거 장소의 스토리를 따라 사람들은 시간여행을 떠나 과거를 경험한다.

4) 출처 : <https://www.latzundpartner.de/>

5) 출처 : <https://www.latzundpartner.de/>



▲ 신티엔디의 과거모습



▲ 잘 정돈된 신티엔디 골목

주민들이 함께 공생하는 낯익은 풍경의 티엔즈팡

이어서 살펴볼 사례는 산업유산이 어떻게 지역주민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특히 건축적 가치가 낮아 철거해야 할 것 같은 산업유산들도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음을 보여준다.

중국 상해는 황푸강 주변으로 수많은 산업유산이 분포하고 있다. 예술가 중심으로 형성된 M50을 비롯한 상해 조각 예술공원, 1933 라오창팡, 사행 창고, 상해 엑스포단지 등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이중 티엔즈팡(田子坊)은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기존 대다수의 산업유산 활용이 거대하고 멋진 산업시설을 재활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이곳은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곳을 방문하면 한번은 가뵤을 법한 낯고 허름한 모습이 펼쳐진다. 그곳에서 방문객들은 낯설지 않은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골목골목 사이에 숨겨진 다양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관찰할 수도 있다. 티엔즈팡(田子坊)은 인근의 근대 역사 경관을 보전한 신티엔디(新天地)와 비교해서 보면 더욱 재미있게 볼 수 있다. 신티엔디에서는 서양식과 중국식이 결합한 스쿠먼

▼ 신티엔디의 스타벅스





▲ 낯설지 않은 거리 풍경, 티엔즈팡



▲ 지역주민이 함께 공생하는 티엔즈팡

(石庫門) 양식의 멋진 건축물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그 건축물은 기존 건물을 대부분 허물고 재조립하여 만든 것이다. 로맨틱한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옛 프랑스풍의 가로 등, 장식품, 간판 등을 새롭게 디자인하였으며, 이곳에는 상해 최고의 매출을 자랑하는 스타벅스와 고급레스토랑들도 입점해 있다.

▼ 일상적 경관의 티엔즈팡 골목



반면 티엔즈팡은 낡고 허름한 건축물을 그대로 활용하여 최대한 낡 것 그대로의 장소성을 보여준다. 특히 이곳에는 기존 주민들이 함께 공생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신티엔디 재개발 사례에서 원주민을 강제로 내쫓았던 일에 대한 반성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저소득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다시 그 장소의 일상적 경관을 형성하여 방문객들이 장소성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준다. 그 장소에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옛 티엔즈팡, 그리고 현재의 티엔즈팡의 기억과 삶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이제 신티엔디보다 티엔즈팡을 더 많이 방문한다.



▲ 옛 방직기와 자동차 전시,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



▲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 외부공간

기업박물관으로 재탄생한 도요타 산업기술 기념관과 노리타케의 숲

일본에도 참고할 만한 많은 산업유산 활용 사례가 있다. 그 중에서 나고야에 위치한 기업박물관 두 곳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렉서스, 캠리 등으로 잘 알려진 도요타 기업의 ‘도요타 산업기술관’과 도자기 잔으로 잘 알려진 ‘노리타케의 숲(ノリタケの森)’이다.

도요타는 원래 자동차 생산 기업이 아닌 방직공장이었다. 1927년 영국의 기술을 양도받아 자동방직기 사업으로 출발 하였지만, 1934년부터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였다. 도요타 산업기술박물관에 들어서면 넓고 거대한

방직기가 방문객의 시선을 차지하고 시야를 압도한다. 방문객과 바이어들에게 도요타 기업의 고유한 역사성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주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기업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한 기업을 소개할 때 현재의 최신 기술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한 홍보 수단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외관에 비해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의 실내 공간은 흔히 볼 수 있는 정형화된 공간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에 비해 노리타케의 숲은 조금 더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를



▲ 편안하고 안전한 공원, 노리타케의 숲



▲ 옛 벽돌을 재활용한 담장, 노리타케의 숲



▲ 노리타케의 숲 전경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공장의 건물은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인지 주변 주민들은 편안하게 일상적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주말에는 지역민들의 결혼식장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옛 건물의 벽돌을 재활용하여 담장을 만들고, 옛 가마터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옛 장소의 흔적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노리타케를 잘 알지 못했던 방문객들조차도 이곳에 머무르게 되면 노리타케라는 기업이 ‘역사가 있는 따뜻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텔레비전이나 온라인을 통한 그 어떤 광고보다 효과적일지 모른다. 즉 산업유산은 역사성 보전의 대상인 동시에, 살아 있는 유산으로서 그 기업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주요한 자산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소중한 인류 유산인 산업유산은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롭게 재발견되고 있다. 버려진 산업시설은 새로운 역사 유산이자 도시재생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으며, 오염된 브라운 필드(Brown field)는 식물을 이용한 치유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장으로 변신하여 지역주민과의 공생을 꿈꾸거나, 기업을 홍보하는 장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 구 장항제련소 항공 사진(1970~80년대 추정)

▲ 산업경관과 소풍(1967)⁶⁾

세계적인 산업유산, 충청남도 장항 산업유산의 재발견

개인적으로 한국 근대 산업화를 상징할 수 있는 가장 주목해야 할 산업유산을 뽑자면, 구로공단, 포항제철 그리고 장항제련소를 소개할 수 있다. 구로공단과 포항제철이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자생적 산업화를 대표하는 유산이라면, 장항제련소는 일제강점기와 자생적 산업화를 동시에 경험한 이중적 층위의 역사성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근대 산업유산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정지한 구 장항제련소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1936년 한국에 있는 금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인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구 장항제련소는 남한 최초의 제련소로 바위(대연돌) 위에 굴뚝을 세움으로써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굴뚝이었으며, 매우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였다. 일본이 패망하고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방치되었던 장항제련소는 1955년 시설현대화를 통해 재건되었다.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 산업시설로 기능하였는데, 과거 사회 교과서의 표지를 장식하거나 영화촬영지 및 관광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바위산 굴뚝 연기가 멀리멀리 퍼져 나가는 모습을 보며 발전하는 한국, 그리고 활기찬 장항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의 근대 산업화라는 역사를 장항제련소의 산업경관을 통해 경험한 것이다. 이처럼

장항제련소는 한국 근대 산업유산, 더 나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산업유산으로서 큰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제련소 굴뚝만큼 소중한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산업유산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한국에서 장항의 근대 산업유산은 그 가치를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변의 중요한 산업유산도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 장항 산업유산 보전 논의와 관련해 안타까운 것은 기존 굴뚝이 재건축되어 보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는 산업유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다.

세계문화유산에서 산업유산은 정원유산과 함께 대표적인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소개되곤 한다. 문화경관은 개별 건물(시설물)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과 환경을 포괄한다. 산업유산은 그 특성상 개별적이지 않고 서로 연결된 유기적인 시스템과 같다. 예를 들어 장항제련소에는 제련소 굴뚝뿐만 아니라, 주변의 산업시설물, 신사, 황금정 마을, 창고, 철로, 항만, 정미소와 제련소 벽돌 등 무수히 많은 산업유산이 함께 분포해 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장항제련소 굴뚝이지만, 그 주변의 것들 또한 산업유산들이기이다.



▲ 산업경관 배경의 영화, '밤을 통곡한다.(1961)'⁷⁾



▲ 장항제련소에서 생산한 금괴⁸⁾

국내 최초의 금 박물관, 그리고 기업박물관 네트워크가 가능한 장항

현재 장항지역에서 일부의 미곡 창고를 보전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장항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정체성을 드러내지는 못한다. 장항은 과거 한국의 거의 모든 금을 생산했던 곳으로 인근의 황금정 마을은 그 상징성을 보여준다. 장항의 장소정체성은 장항제련소 굴뚝과 더불어 그곳의 생산품이었던 '황금'에 있다. 금은 다양한 상품화가 가능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소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련소 굴뚝 하부 시설물, 터널, 신사터, 물탱크 및 야적장 등의 시설을 이용한 국내 최초의 금 박물관을 조성하고, 제련소 주변의 다양한 산업유산을 함께 네트워크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기업을 연계한 기업박물관과 오염 토양에 대한 생태적 치유과정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장항에는 세계 최대 백상지 회사인 한솔제지, 국내 최대 화장품 등의 유리 용기를 제조하는 퍼시픽글라스, 풍농, LS 메탈 등의 기업이 위치해 있다. 기업박물관과 산업 공예 예술을 연계한다면, 장항이라는 장소를 기억할 수 있는 세계적인 장항 산업유산 공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6) 출처 : 방도원(지역주민)

7) 출처 : 김남용(지역주민)

8) 출처 : LG금속 60년사(1997)

참고 문헌

1. 박재민, 성종상 (2012) 산업유산 개념의 변천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1(1), 65-72.
2. 박재민 (2007) 장항 근대 산업유산 재발견 및 활용 계획, 서울대학교 대학원.
3. 박재민, 성종상 (2012) 장항의 산업유산 분포 현황과 도시 형성 과정, 국토지리학회지.
4. 주식회사 LG금속 (1997) 엘지금속 60년사, 서울 : LG.
5. Zheng, Jane (2010) The "entrepreneurial state" in "Creative industry cluster" development in Shanghai, Journal of urban affairs, 32(2) : 143-170. Wu, Fulong (2000) Place promotion in Shanghai, PRC, Cities, 17(5) : 349-361.
6. Yang, Y., Chang, C. (2007) An Urban Regeneration Regime in China : A Case Study of Urban Redevelopment in Shanghai's Taipingqiao Area. Urban Studies, 44(9) : 1809-1826.
7. www.emscherlandschaftspark-blog.de

제3의 공간에서의 공유가치, 에덴 프로젝트 / 커넬시티 하카타



LG생활건강_임선희 수석디자이너

사람과 식물이 더불어 살아 움직이는 콘서트 홀 에덴 프로젝트 (Living theatre of plants and people)

영국 남서부 콘월(Cornwall) 지방에 거대하게 펼쳐진 '에덴 프로젝트'는 초대형 식물원 이자 대규모 생태학습장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은 매년 100만 명에 달한다.

1993년 영국 정부는 '복원사업단'을 설립했다. 이 기관의 역할 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에덴 프로젝트가

▼ 에덴 프로젝트 전경





▲ 폐광지일 때 모습



▲ 지형적 특징

바로 이 혜택의 수혜자로, 런던 워털루 스테이션의 유로스타 터미널로 유명한 영국의 하이테크 건축가 니콜라스 그림쇼(Nicholas Grimshaw) 경의 설계작품이다. 에덴 프로젝트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콘월의 고령토 웅덩이를 생물권 실험실로 만들고자 했으며, 8,5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또한 바이옴에는 다양하게 변하는 기후에 대해 항상 최적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을 접목하였다.

에덴 프로젝트는 깊은 협곡의 측면을 따라 길게 건설된 구조물이다. 그중에서도 열대 생태관은 가장 인상적인 구획으로 여러 개의 돔으로 이루어진 온실이다. 이곳은 열대우림지역의 생태를 재현하고 있으며, 따뜻하고 높은 습도 속에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옮겨진 수백 종류의 나무와 식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조건에 따라 우림 바이옴과 지중해 바이옴을 링크로 이어 구성하였으며, 각 바이옴마다 기후에 맞는 정원을 조성하여 세계 각국의 5,000여 종의 식물과 희귀종을 보존·개발하고 있다. 돔의 규모는 길이 240m, 높이 55m, 폭 110m이다.

1. 폐광의 기적

현재 '지상 낙원'이라 칭송받고 있는 에덴 프로젝트는 약 10여 년 전만 해도 주민들의 골머리를 썩이던 곳이었다. 고령토

채광지가 문을 닫은 뒤 광산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로 지역 경제는 점점 나빠져 갔다. 이곳은 본래 도공들이 도자기를 빚기 위해 사용하던 점토 생산지였던 까닭에 특이한 지형이 형성되었다. 점토를 파내느라 60m 깊이의 골짜기가 생겨났는데, 골짜기 바닥에 점토 찌꺼기가 두텁게 깔려 있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전혀 없었다. 에덴 프로젝트는 이 특징을 살려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로 기획되었다. 식물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팀은 180만 톤의 흙을 골짜기 안에 골고루 덮었고, 4,300만 갤런의 물을 돔의 윗부분으로 끌어올려 흘러내리도록 하는 시스템을 건설했다. '지속 가능한 재개발'을 위하여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외관을 둘러싼 바이옴의 기본 틀은 가볍고 탄력적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다. 또한 지지대는 강철로 구조화 하였고, 외피는 투명한 막으로 되었으며, 유리 집 바닥에는 날씨 변화에 반응하는 센서와 함께 압축공기를 채운 굴대받이를 설치했다.

한편 에덴 프로젝트의 창립자인 팀 스미트는 가이드북에서 단순히 식물원이 아닌 프로젝트라 이름을 지은 것은 온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시도를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였다. 즉 환경 건축 사업 전문가 외에 다양한 전문가를 영입하여 지금껏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분야를 고려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2. 바이옴(Biome)

주요 건물군은 방문자센터, 더 코어관(The Core), 온대 온실, 아열대 온실, 링크동(Link), 야외음악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바이옴(Biome)과 야외전시장은 약 5,000여 종을 대표하는 100만여 개의 세계 식생이 주제 및 지역별로 전시되어 있다.

돔 형태의 온실은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루기 위하여 벌집의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돔은 메로 시스템(Mero System) 방식으로 건설되어 각 관이 절점에 모여 볼트로 접합되었다.

돔의 상부와 측면에는 온도조절 개폐 창을 설치하였으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내부와 외부 사이의 온도와 습도 차이를 조절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에코시스템(Eco-System)을 통해 축열된 열을 야간시간에 방열하여 일교차를 완화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게 하였다.

▼ 온도조절 개폐창 상부





▲ 관람 중인 사람들

▼ 외관을 둘러싼 구조물





▲ 배치된 환경 캠페인



▲ THE CORE 내부 냉장고 자석 방명록

3. 녹색 성장 교육의 체험

에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철학은 ‘교육’이라고 한다. 이 프로젝트는 자연이 만든 곡물로 먹고, 입고, 거주해 오던 인간이 산업화 과정에서 이 기본을 잃어버렸고, 결국 오늘과 같은 환경위기와 자원고갈을 가져왔다고 강조한다. 에덴 프로젝트의 교육은 체험과 지역성 연계를 강조한다. 가령 전시된 식물의 특징을 설명할 때,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 작용 및 관계 중심으로 풀어가는데 동시에 사회 경제적 맥락 또한 잊지 않는다.

‘더 코어관’의 독특한 지붕 형태는 해바라기의 모양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어린이 체험 및 전시, 교육을 진행하며, 방문자를 대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한 전시체험 위주의 프로젝트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열대 우림의 다양한 작물과 식물을 설명하는 동시에, 그 내용을 점점 확대하여 사회적 생태계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공정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빗물 및 지하수 활용 등 자원의



▲ THE CORE 내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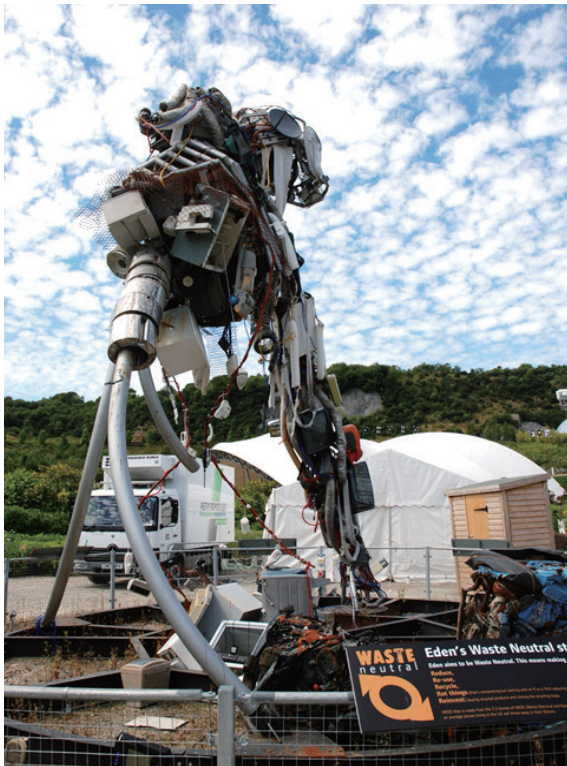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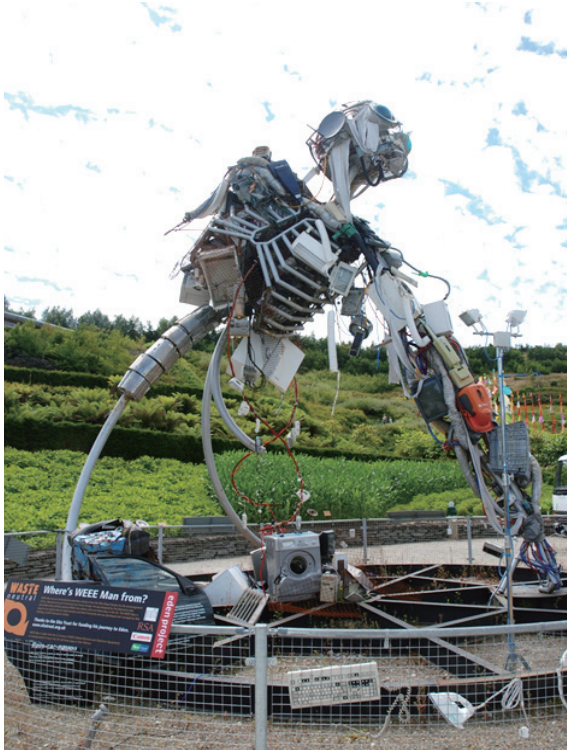


▲ THE CORE 내부 2

순환을 적극적으로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역 및 작물과 관련한 교육에 있어 스토리텔링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재생 자재를 활용한 이벤트 및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한 공감대 형성에 힘쓰고 있다.

▼ THE CORE 외관





▲ 폐자재 로봇 모형

4. 지역사회 네트워크

폐광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중요한 장소가 된 것을 바탕으로, 에덴 프로젝트의 교육이 강조하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다. 스미트는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에덴 프로젝트는 탄생할 수 없었다”라고 밝힌다. 실제로 에덴 프로젝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95%, 먹는 식자재의 82%, 연료의 15%는 이 지역의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로컬푸드(지역 농산물)의 중요성과 실천에 대해서는 방문자들의 공감도가 매우 높다.



▲ 반구형의 돔으로 된 공간

운하 위의 도시 커널시티 (City on the Canel)

1. 공간의 브리지

‘운하 위의 도시’라 불리는 커널시티는 텐진과 하카타역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복합 쇼핑센터다. 총길이 180m의 인공운하 커널을 중심으로 총 6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롯폰기 힐즈와 오사카의 남바 파크를 디자인한 건축가 ‘존 저드’가 설계하였는데, 운하를 따라 곡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건물의 외관과 화려한 색상이 조형미를 이루고 있다.

이곳은 올인원(all in one) 효과를 극대화하여 다양한 어뮤즈먼트 시설과 쇼핑몰, 복합예술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중앙의 운하와 연결되어 야외무대와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국제적인 관광 장소가 되었다. 커널시티는 미쿤다가 제안한 ‘제3의 공간’의 한 요소인 ‘몰링’ 효과를 극대화하는 모든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기념비적인 ‘랜드마크’의 효과를 보여주어 사람들이 끝없이 그 안을 돌아다니게 만들며, 주제가 되는 ‘콘셉트 라인’을 갖추고, 매력적인 ‘코어 어트랙션’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등 ‘제3의 공간’이 지녀야 할 네 가지 본질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지하 1층부터 운하를 따라 캐주얼한 분위기의 음식점과 잡화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까지는 판매 시설, 4층은 엔터테인먼트 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은 운하라는 물의 흐름의 콘셉트에 따라 곡선과 원형으로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1층의 중앙 공연 무대가 있는 부분은 지상 5층까지 반구형의 돔으로 디자인되어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한다. 또한 중정 공간이 각 건물을 연결하고 있으며, 인공운하와 연결되어 복합쇼핑몰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엔터테인먼트의 도시

시간, 계절, 세대, 국적과 관계없이 다양한 이벤트와 전통적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밤에는 인공운하에서 리듬에 맞추어 분수가 뿜어져 나오는 등 다양한 쇼를 보여준다.

▼ 커널시티 분수쇼



즉 엔터테인먼트 도시의 명성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영화를 보여주는 대규모 멀티플렉스 극장이면서, 동시에 전국 인기 라면을 모아놓은 ‘라멘 스타디움’을 마련한 마케팅 전략은 관광객에게 매우 호응이 좋다. 이는 감각적 체험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집이나 업무공간 외의 제3의 공간에서 경험하는 감각적인 환희와 내 집 같은 편안함을 제공한다. 이 ‘연출된 공간’은 도시의 활력소가 되며 새로운 공간 개념을 제공한다.

마치며...

호프 HOF (Home + Ontact + Flow)와 제3의 공간

현대인에게 자신의 공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능적 사용성, 심리적 안식처, 사유의 공간 등 그 성격은 다양하게 발전·변화해왔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언택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에덴 프로젝트나 커널시티 같은 장소는 그리운 공간으로 떠오른다. 이는 ‘제3의 공간’ 개념으로 공동체인 동시에 사적인 영위를 촉진하고 육성하는 새로운 장소이면서, 또한 휴식과 창조와 공유를 이끌어 내는 공간이다.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개인이 쓸 수도 있고, 개인 공간에서 함께 활동할 수도 있다. 즉 다양한 형태의 공간적 접근이 가능하며, 다양한 해석의 공간이 된다.

이 공유하는 공간적 체험이 가능한 제3의 공간을 마음껏 접하지 못하는 지금, 제1공간에서의 집 중심의 생활과 제2공간에서의 업무 중심의 생활이 재택근무로 인해 합쳐지고 있다. 집은 이제 제3의 공간까지도 포용하는 삶의 중심이 되었다. 이는 집을 중심으로 생활의 변화, 쾌적한 환경 등이 합쳐진 공간을 일컫는 ‘호프’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이와 같은 모습은 에덴 프로젝트의 바이옴 내부에서 보호받으며 생활하는 식물들의 모습, 그리고 재활용 재생산되는 에덴 프로젝트의 자생적 행태와 비슷하다. 집이 외부로부터의 보호받는 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모든 공간(제1공간, 제2공간, 제3공간)을 융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첩되어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제3의 공간만이 가진 공유 및 공용의 특성, 즉 제1의 공간과 제2의 공간이 가지지 못한 유희, 평등한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온전한 제3의 공간이 다시 그리워진다. 그 공간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

TEAM

당진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_전용현 주무관

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지역의 가치 및 도시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는 정책이 중앙부처 및 전국 시·군 단위로 활발해졌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맞춰 우리 도에서도 타 광역자치체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2009년부터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을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공공디자인(도시, 농촌) 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등 72개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완료했으며, 사업을 통해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정비 등 가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범죄, 안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해결에도 공공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문제를 개선해 왔다.

2. 2021년도 공모사업 선정 현황

금년에도 시·군 공모를 통해 2021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당진시, 아산시, 홍성군, 서산시, 공주시 등 5개소,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홍성군, 아산시, 보령시 등 3개소 등 총 6개 시·군 8개소를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 당진시「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소마을 경관개선 사업」



▲ 홍성군「동정동 안전 안심길 만들기 사업」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서는 당진시「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성소마을 경관개선 사업」이 최고 점수를 얻었다. 합덕 성당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콘셉트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성 측면에서 타 시·군의 사업내용보다 우수한 높은 평가를 얻었다.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에서는 홍성군 홍성읍 오관 8리「동정동 안전 안심길 만들기 사업」이 최고 점수를 얻었다. 보행 약자를 배려한 마을 길 조성 및 현장 맞춤형 안전시설 구축 등이 사업의 주 내용이다.

3. 시·군 사업 현장 점검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9월에는 2017년 이후 사업이 완료된 사업 대상지 13개소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였다.

현장 점검은 충남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들과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사업 추진으로 인한 효과성,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점검 결과 주요 미비 사례는 아래 내용과 같았다.

- 공공디자인 심의 조건 사항 및 조치계획 사항 미반영
- 사업 완료 후 오염되거나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상태 부실
- 사업 추진 시 해당 시·군 타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아, 사업 완료 후 일부 시설물 등이 철거된 사례
- 주민들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주민과의 협의 부족으로 당초 계획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사업 효과가 미미한 사례
- 대상지 디자인 아이템 부족으로 사업 완료 후 디자인 정비 효과가 미미한 사례
- 사유지 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추후 유지관리가 어려운 사례
- 쓰레기 투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 사례
- 사업 추진 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설치된 시설물의 이용률이 저조한 사례
- 셉테드 시설물(반사경, 안심벨) 관리 부족으로 시설물 사용성이 떨어지는 사례
-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설치된 안내사 인물이 유명무실한 사례

점검 결과 일부 사업들의 경우 충분한 고려 없이 단기적 목표와 효과에만 집중해 추진되어 사업 후 사업 효과성이 미비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낮아 추후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코로나19는 지금껏 살아온 모든 사회질서를 바꾸고 있으며, 사용자의 환경 역시 급속히 바뀌고 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춰 공공디자인은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의 효과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주제와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변경(안)
-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5개소	- 「통학길 생활안전 디자인 사업」: 2개소
-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3개소	- 「관광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2개소
	- 「고령자를 위한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2개소
	- 가로 보행환경개선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2개소

또한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목표’, ‘사업의 효과성’, ‘유지관리 적절성’ 등을 진단해 향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피드백 절차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여 창조적인 공공공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 유명무실한 쓰레기 투기 금지 디자인



▲ 디자인 계획 부실



▲ 시인성이 떨어지는 사인물



▲ 당초 디자인 계획과 달리 쓰이는 분리수거함



▲ 비상벨 및 안내 사인물 주변 유지관리 부실



▲ 차량 높이 고려 없이 설치된 카스토퍼



▲ 설치된 시설물 유지관리 부실



▲ 설치된 시설물 유지관리 부실



▲ 추후 오염을 고려하지 않는 옹벽 도색



▲ 타 사업으로 인해 설치된 시설물 훼손 사례



▲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례

FOCUS ON

센터소식

- 056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자문위원 워크숍(1, 2차)」 개최
- 058 충청남도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사업 벤치마킹을 위한
대전디자인진흥원 관계자 방문
- 059 2014~2020 연구성과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자문위원 워크숍(1, 2차)」 개최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는 2020년 6월부터 센터에 새롭게 도입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기능에 따른 자문위원의 역할, 그리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문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7월 8일(수)과 9일(목), 양일간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컨설팅 제도의 역할 정립, 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1차 워크숍에서는 공공건축 분야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관련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충청남도과 공공디자인센터 간 역할 분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새롭게 도입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②‘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반된 의견이 제시될 경우를 고려한 대책 마련, ③사전검토 의견서 작성 가이드라인 수립 및 진행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④사전검토(공사 기간·공사비·설계 기간 등) 관련 DB 구축 등이 논의되었다.





2차 워크숍에서는 도시 및 조경계획, 디자인(공간·산업·시각 등) 분야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제도’ 관련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①컨설팅 사업의 진행단계 및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컨설팅 확대를 위한 컨설팅 제도 홍보 강화, ②컨설팅 반영 여부가 구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③충청남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및 디자인 사업 발굴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일상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데 있어 디자인의 역할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과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현재 공공디자인센터가 역할이나 업무 등에서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지만,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보하고 홍보를 확대하여 그 역할과 위상을 더욱 높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2021년에도 충청남도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및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야별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사업 벤치마킹을 위한 대전디자인진흥원 관계자 방문

대전디자인진흥원 관계자들이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를 방문하였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은 대전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디자인 주도의 지역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받았으며,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대전디자인진흥원 관계자의 이번 센터 방문은 디자인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충청남도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을 벤치마킹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7월 27일(월)에 실무 담당자(기업지원팀)들이 센터를 방문하였으며, 센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운영체계, 디자인 컨설팅, 정책연구, 공공건축 지원업무, 디자인 행정 역량강화사업 등 센터 주요 업무를 소개하였다. 대전디자인진흥원 실무자들은 특히 충남의 디자인 컨설팅 대상사업 선정방식과 사업단계별로 진행되는 컨설팅 운영체계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편,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센터와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앞으로도 지역 공공사업의 디자인 개선과 경관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014~2020 연구성과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경관·공공디자인 실태조사 충청남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가이드라인 개발 [현안과제]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농촌마을범죄예방 디자인 추진방안 고령화 사회의 대응을 위한 충청남도 유니버설 디자인 실태조사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컨설팅 발전방안 충청남도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안 충청남도 관광안내 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해안경관 실태 및 관련계획 분석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 충청남도 문화재 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현안과제] 충청남도 정책홍보 방안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방안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방안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전략과제] 충청남도 경관기록화사업 추진방안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경관심의 개선 및 운영방안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사업 사후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충청남도 홍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미래발전계획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공사용 가림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경관,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전략과제]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표 구축 시스템 개발 연구

국내 정책동향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062 중앙부처

069 광역지방자치단체

086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중앙부처

건축 및 도시

국토교통부,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10개 팀 선정

2020. 06. 02.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역량과

국토교통부는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개 팀을 선정했다. 선정된 10개 팀은 6월 4일부터 3개월간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며 공모에 제출한 사업을 발전시킬 기회를 갖게 되고, 사업기획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500만 원)도 지원받게 된다. 3개월 후에 우수팀으로 선정되는 팀은 초기 사업비의 일부(1천 500만 원)를 지원받고, 3개월간 전문가 컨설팅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10개팀

분야	지역	팀명	사업내용
사업 창업	서울 양천구	양천해울	경력단절 여성들이 강사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내 교육 문화 프로그램 보급
	강원 횡성군	청년비상	농촌 일손을 돕고 농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방제 사업 실현
	경남 함안시	함안통!	지역 특산품인 파프리카를 활용한 먹거리 개발 및 축제 개최 등을 통해 지역브랜드 개발
	충남 서천군	더블 트라이앵글	주민 주도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골목 상권 활성화
공동체 육성	서울 강서구	송정리 주(酒)인들	지역재배 쌀을 활용한 전통주 사업화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수익창출
	강원 동해시	봉정연꽃마을 주민	연꽃 등 마을 농산물자원을 활용한 음식개발 및 마을 공동 식당운영으로 공동체 활성화
	강원 횡성군	구리고개	주민협의체 구성, 화단 및 담장 정비, 골목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경북 봉화군	아기사슴 별별이야기	천문관측 자료를 활용한 불거리와 별자리 체험 행사, 먹거리 개발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경북 문경시	문경청년연합	지역 소규모 농상공인 협동조합 구성을 통해 생산품 품질 향상 및 수익증대
	전남 구례군	좋은 도서관모임	작은도서관을 거점으로 하는 생활문화 공동체 육성 및 지역문화 활성화

국토교통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담 4개 교육 기관 선정

2020. 06. 03.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4개의 교육기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교육기관은 한옥 설계과정에 대한 건축사협회, 명지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3개 기관,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에 한옥문화원 1개 기관이다. 한옥설계 전문과정은 현장 실무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입문과정 외에 심화과정을 추가로 운영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은 공정관리와 같은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재수량 산출, 발주 등 시공현장의 전반적인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 선정

2020. 07. 19.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지자체 29곳을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총 38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하였으며, 사업 목표·전략, 세부계획, 연계서비스 계획 등의 구체성·실현가능성과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최종 선정된 지자체들이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에 교부할 예정이며, 연내 통합플랫폼 보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협회, 전국 지자체 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과정에서의 기술 컨설팅, 정책 자문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 발간

2020. 07. 27.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를 발간하고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총 829명이며, 위촉 현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에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과 운영현황,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운영, 공공기관의 준비사항, 지자체 우수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발표

2020. 07. 30. |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정부는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우선,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성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전(全) 기관에 중점 확산시킬 계획이다(지역산업·지역인재·지역상생 3대 축 16개 우수사례), ②혁신도시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③향후 정부는 관계부처(국토교통부·균형발전위원회·기획재정부 등)·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발족하여 우수사례의 확산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10대 협업과제의 추진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신규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0. 08. 03.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축정책을 직접 제안 받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건축의 현재를 진단하거나 미래 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 건축과 공간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총괄기획가 민간전문가 그룹 출범

2020. 08. 09.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 그룹인 '그린리모델링 총괄기획가'를 선정하고 위촉 행사를 가졌다. 각 시·도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 '총괄기획가'는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들을 총괄·관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공모를 통해 총 718건의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지로 우선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대상에 대해서는 8월중 설계용역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수요 등을 감안해 8월말까지 사업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공공참여형 공공재건축·재개발 지원센터 설치

2020. 08. 20.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공공재건축은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외에도 ①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 ②투명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조달을 통한 조합 내 갈등 완화와 비리 예방, ③시공사 선정(민간 브랜드 사용)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조합 자율성 보장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조합 등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 08. 25.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정책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및 혁신지구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 범위 확대, ②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 명확화 및 대상 확대, ③도시재생 혁신지구 내 건축물 공급방법 개선이다.

국토교통부, 빈집 활용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2020. 08. 30. | 국토교통부 | 주거재생과

국토교통부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①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정비계획 수립, ②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 성과 가시화: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빈집정비사업 조속 추진,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추진, ③빈집 관련 법·제도 개선이다.

2020년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 총 23곳 선정 2020. 09. 16.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정책과

정부는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0년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 총 23곳을 선정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사업을 연계하여 효과를 상승시키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라북도 익산시 등 총 8곳이 선정되었다. 사업지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유형	사업지	시행자	주요내용
총괄사업관리자(8)	중심시가지(4)	경남 밀양 LH	아리랑을 테마로 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어울림센터 등 문화혁신거점 및 상업가로 조성
		충북 제천 충북개발공사	제천역 역세권 활성화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거점시설 및 빈상가를 활용한 상생협력상가 조성
		서울 성북 SH	청년·대학지역의 상생성장 및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단계별 창업생태계 구축 공간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대전 동구 LH	대전역 폭발적 정비와 연계한 공공생활복합시설,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한의약 특화거리 및 상생상가 조성
	일반근린(4)	강원 철원 LH	원도심의 중심·상권 기능회복을 위해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과 연계한 터미널 리모델링 및 어울림 플랫폼 조성
		전북 익산 LH	노후 청사 주변 정주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청 리뉴얼, 행복주택 등 주거·복지 플랫폼 및 상생거점 조성
		경기 하남 경기도시공사	교산 신도시와의 동반성장 체계 마련을 위한 생활문화어울림센터 등 복합거점 조성 및 노후 주거지 재생
		경북 칠곡 경북개발공사	사회적경제 등 공동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문화복합플랫폼, 구상시인·이중섭화가 인문학 가로조성

한편,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히 확산하는 인정사업 방식으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청남도 금산군 등 총 15곳이 선정되었다. 사업지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유형	사업지별 생활SOC 공급방안
위험 건축물 정비(3)	① 인천 부평(붕괴위험 축대 정비) ② 전북 전주(붕괴 진행 중 적산가옥 철거) ③ 광주 동구(신축 중단으로 붕괴된 건축물 정비)
장기 방치 건축물재생(2)	① 충남 금산(폐업 후 방치된 병원건물 활용) ② 전남 완도(방치된 기피시설인 구) 완도문화원 활용)
노후공공시설 활용(4)	① 충북 충주(노후 행정복지센터 활용) ② 충남 당진(노후 마을회관, 경로당, 관사 활용) ③ 전북 임실(이전 예정인 군립도서관 활용) ④ 전남 담양(노후 문화관 활용)
유휴 공공용지 활용(6)	① 경기 의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시설 용지 활용) ② 충북 영동(소방서 이전부지 활용) ③ 충북 음성(군사시설 이전적지 활용) ④ 대구 달서(영구임대단지 내 유휴부지 활용) ⑤ 전북 전주(국립무형유산원 인근부지 활용) ⑥ 전남 보성(황폐화된 주차장 활용)

2020년에 선정된 23개 사업에는 2024년까지 총 1.2조 원이 순차 투입되고, 총 150만㎡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

2020. 09. 23. |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지원정책과

보육·돌봄 등 육아공간과 창업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전북 복합혁신센터 착공식이 열린다. 이번 전북 복합혁신센터 착공은 전북 완주 복합혁신센터 증축에 이어 복합혁신센터의 본격적인 착수를 알리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2020년 내 대부분의 복합혁신센터를 착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혁신도시가 지역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쳐왔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사업기본지침”을 마련하고 2020년 안으로 제주, 경남, 경북, 강원 등 7~8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착공, 20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복합혁신센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2020. 09. 24.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도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주변과의 연계성, 공공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대상지별 검토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전라북도 무주군 관광호텔: 기존 골조를 활용하여 주변의 복지시설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②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 등에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③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집회시설: 공익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④충청남도 아산시 근린생활시설: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거점공간인 생활형 SOC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2020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

2020. 09. 29.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을 2020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선정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그린리모델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해당 건축물 관리 기관은 제안된 내용에 따라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계획서 또는 착수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세먼지 저감 도시조성 가이드라인’ 도출

2020. 06. 15.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도시정책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을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저감 방안>

- ☐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 가. 고정배출원 관리
 - 나. 이동배출원 관리
- ☐ 미세먼지 감축시스템 구축
 - 가. 녹지기반 구축
 - 나. 물 기반 구축
 - 다. 바람 기반 구축
- ☐ 미세먼지 대응시스템 구축

2020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실무 우수 사례집 발간

2020. 08. 1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사업관리총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실무 우수 사례집(4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건설현장 실무협의(멘토링) 모임을 통해 논의된 내용 중 우수사례 245건과 건설공사 참여

자들에게 건설공사 진행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교육자료(화재예방,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안전가시설 작업)로 구성하였다. 이번 사례집은 제작과정에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국민생각함을 통해 개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우수사례와 별도로 주요 교육 자료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1차 심사결과 발표

2020. 09. 0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공건축추진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심사위원회는 1차 공모의 당선작으로 <節合都市 절합도시>, <제목 미정(세종시 'KMUA' 제안을 위한 2가지 목표)>, <제목 미정(TIME SCAPÉ MUSEUM)> 등 총 5개 작품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5개 작품은 공통적으로 도시와 건축에 대한 지식 전달이 개방적이고 시민에게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독자적인 아이디어와 개성을 가지면서도 배치, 평면, 공간, 형태 등 건축 전반에 걸쳐 타 작품에 비해 완성도가 높았으며, 주변 대지의 회랑과 적절히 연계되면서 외부공간과 전시관 내부가 상호 관계성을 갖추고 있는 점도 돋보였다.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1차 공모 당선작



산림청, 도시숲법 제정·공포

2020. 06. 12. | 산림청 | 도시숲경관과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은 보다 나은 환경과 미래를 위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정·공포되었다.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 및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조성·관리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도시숲법 제정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확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관 및 공공공간

국토교통부,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우수작 25점 선정

2020. 07. 16.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천사대교’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청년이 만들어 낸 (공유의 공간) 반지하’가 선정되었다. ‘천사대교’는 신안군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세계최장 고저주탑 사장교로서, 새로운 지역경관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이 만들어 낸 (공유의 공간) 반지하’는 청년건축가 주도로 반지하 임대주택 6개소를 청년 코워킹공간, 공유주방, 실내가드닝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커뮤니티 활성화 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 ‘천사대교’ 대통령상 수상



「3차원 경관심의 기술 공모전」 개최

2020. 08. 17.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는 입체적 경관관리를 위해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 지역 경관, 3차원 경관심의 기술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경관관리 기술의 활용과 개발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3차원 국토 경관관리 여건을 조성하고자 계획되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술은 오픈 플랫폼이나 정부 공간정보 플랫폼 사용 환경에 구현하여 공공·민간 등에서 범용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한편, 지자체 경관심의 시 선정된 기술의 활용을 적극 권고하는 등 기술 확산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놀이터 감리단 행사 개최

2020. 07. 0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도시공간건축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금강 남측 보람동(3·2생활권)에 조성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린이 감리단 행사를 개최했다. 어린이 놀이터 시범사업은 감리단을 구성하고, ‘어린이 디자이너 캠프’부터 수요자인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여 모험과 도전정신이 길러질 수 있도록 꾸며졌다. 놀이터 주요 시설은 모험심을 자극하는 ‘로프놀이원’, 두근두근 가슴이 뛰는 ‘짚라인’, 주문진 여과모래를 이용한 ‘모래놀이원’,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회전놀이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장애인증도 받을 예정이다.

▼ 금강 남측 보람동(3·2생활권), 어린이 놀이터



마을만들기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수립

2020. 10. 05. | 국토교통부 | 도로시설안전과

국토교통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고시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보호구간 지정기준) 마을 인접 도로구간 중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1km 내에서 8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구간을 후보지로 규정, ②(사업 추진 절차) 대상구간 선정→설계→시공→관리까지의 단계별 절차를 제시하고, 안전시설물의 시인성·반사성능 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매년 관리계획 수립 제시, ③(유형 구분) 사업 시행구간의 교통 특성과 보행 환경, 시행기관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로시설 개량형, 보호구간 인지·단속형, 보호구간 인지형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설치 권장 시설물을 제시, ④(시설기준) 사업 시행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안전시설 도입을 위해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의 규격·최소 성능·설치 간격 등을 규정하였다.

2020년 우수마을기업 11개 선정

2020. 09. 06. | 행정안전부 | 지역공동체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우수마을기업 11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지내들 영농조합법인’은 영광의 대표 작물인 보리를 직접 생산 또는 계약 구매하여 상품을 개발·판매함으로써 지역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우수상에는 ‘농부들의 카페장터(경기 가평)’, ‘원연장마을(전북 진안)’이 선정되었다. ‘농부들의 카페장터’는 드립백 커피 제조시설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대표 농산물인 잣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하여 판로를 넓히고 있다. ‘원연장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농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판매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시설물 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착수

2020. 08. 12. | 국토교통부 | 시설안전과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을 보다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사업을 착수한다. 시설물 안전정보를 DB화 할 수 있도록 2019년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하였으며, 2020년에는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정확한 정보를 선별·입력할 수 있도록 토목·건축학과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총 35개 대학이 지원하였으며, 이중 참여자의 수, 취업취약계층 비율 등을 심사하여 총 31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건축 및 도시

서울특별시, '서울, 건축 이야기' 스토리텔링 시민공모전

2020. 06. 04. | 서울특별시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는 제6회 『서울, 건축 이야기』 스토리텔링 공모전 작품을 공모했다. '나와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숨쉬며, 웃고 우는 삶의 시간이 응축되어 있는 공간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특별시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통해 듣고자 했다. 2020년에는 '2020 제12회 서울건축 문화제' 주제인 '틈새건축'을 중심으로 에세이, 영상, 사진 부문에 더하여 그림부문을 신설하여 4개 부문으로 총 26명에게 상을 시상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역 내 신·증축 시 주차장 설치 면제... 소규모 건축 활성화

2020. 07. 22.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서울특별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증축 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차장 1면 설치가 필요한 신·개·재축의 경우와, 주차장 1대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증축의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서울특별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이 저조한 이유가 복합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외에도 견폐율, 건축선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서울특별시, 나의 한강사용법은? '한강건축상상전' 아이디어 공모

2020. 07. 31. | 서울특별시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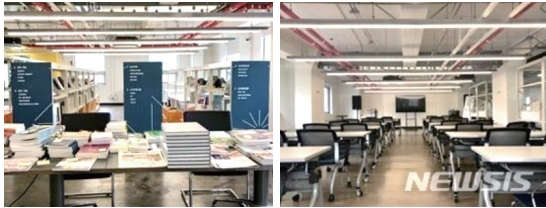
서울특별시는 한강건축상상전 '나의 한강사용법(My Hangang River Manual)'이라는 제목으로 일반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공모 주제는 '한강을 사용하는 재미있고 창의적인 방법(상상)'으로 수변공간 활용, 도시경관, 다양한 활동 등 한강을 즐기고 이용하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한강에 ○○○○이 생긴다면(공간, 건축, 가로시설, 프로그램 등)'이라는 자유로운 상상 등이다. 일반시민 부문은 '영상'과 함께 '드로잉' 형식으로 공모를 진행하였고, 전문가 부문은 '영상' 공모를 통한 완성도 있는 아이디어로 시책 추진 등 적극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였다.

'서울도시건축센터' 새 단장...2020년 8월 18일부터 사전예약제로 운영 재개

2020. 08. 18. | 서울특별시 | 도시공간개선단

서울도시건축센터가 새 단장 후 운영을 재개한다. 서울도시건축센터는 새 단장을 통해 2층은 '모두의 라운지', '라키비움', 3층은 '도시건축 아카이브'로 조성하여 어린이, 시민, 전문가들에게 도시·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용객들은 서울도시건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체크, 참석명부 작성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서울도시건축센터



서울의 도시재생이야기, 온라인 전시(VR)로 만난다

2020. 08. 19.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서울도시재생이야기관이 온라인전시관(VR) 서비스를 시작한다. 온라인 도시재생이야기관에서는 ‘만개의 풍경, 만개의 서울’을 VR을 통해 360도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전시장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영상을 온라인에서도 감상·체험할 수 있다. 또한 서울도시재생이야기관은 한진인서울 기획전과 함께 도시재생 기업(CRC)의 판로개척 및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한진인서울 도시재생지역제품 상설판매장’을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참여 도시재생 전문가 강연 프로그램인 어반살롱(Urban Salon)을 비대면 온라인 강연방식으로 진행한다.

▼ VR을 통해 360도 관람이 가능한 ‘서울도시재생이야기관’



2020년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 클리오 사옥 선정

2020. 08. 20. | 서울특별시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는 2020년 제38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에 ‘클리오 사옥’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옥의 건축형태는

4개층 단위로 묶여 변위를 주며 수직으로 적층되어 남산 조망, 서울숲의 파크뷰와 한강의 리버뷰가 가능한 성수동의 복합적 도시맥락을 함축하고 있다. ‘TERRAFFICE’ 개념으로 명명된 4개층 단위의 큰 테라스와 매 층 제공되는 작은 테라스를 통해 관찰자와 사용자의 시점으로 도시풍경을 만드는 전략이 흥미롭다. 건축상 수상자(설계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이, 건축주에게는 건축물에 부착하는 기념동판이 수여된다.

▼ 2020년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 ‘클리오 사옥’



서울특별시-한국토지주택공사, 2022년까지 900호 주택 단지에 도시농업 공간...주민 정서 돌봄

2020. 08. 20. | 서울특별시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서울특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농업’을 매개로 입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정서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단지 내 옥상 등 유휴부지에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여 입주민이 함께 농작물을 가꾸고 꽃

과 나무를 키우는 ‘도시농업 주거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농업 공간을 2022년까지 총 900호 주택단지에 조성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부지를 제공하는데, 2020년 12월부터 도봉구 방학동 소재 고령자 전용주택 <해심당(海心堂)>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해심당>은 어르신들이 ‘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낼 수 있는 집’을 의미한다. 지하1층~지상 4층, 21호 규모로 2020년 연말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지 내 도시농업 공간을 만들고, 코디네이터를 활용해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서울특별시는 옥상 텃밭(Kitchen Garden) 운영 등 도시농업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도봉구 방학동 소재 고령자 전용주택 <해심당(海心堂)>



나만 아는 우리동네 정원 뽐내기! ‘푸른도시 서울상’ 공모

2020. 08. 31. | 서울특별시 | 푸른도시국 조경과

서울특별시는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 시민공모를 모집한다.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는 서울특별시 내 동네(골목길·자투리땅), 학교, 공공청사, 건물·상가, 개인·공동주택(아파트) 등 생활공간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꾼 우수사례 시상을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정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모전이다. 2020년에는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해 녹색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치구를 격려하기 위하여 13개소를 선정하고, 대상 자치구(1개소)에는 상금 1억 원과 상장을 수여, 그 외 자치구엔 상장 및 인증물을 수여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 발표

2020. 09. 02. | 서울특별시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가 ‘사회적 건축-포스트코로나’ 일반 아이디어 공모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대상 작품은 Hoang Nhat Anh(베트남)이 제출한 작품으로, 사회적 전염병으로부터 도시 시설과 환경 재구성을 통해 안전한 공공 공간을 제안한 <The invisible Facemask(디 인비저블 페이스마스크)>가 선정됐다. ‘디 인비저블 페이스마스크’ 작품에서는 직장 and 사회적 장소로부터 거리를 뒤야하는 COVID-19로 도시의 다양한 연결기능이 중단되고 상실되는 것을 우려하여, 공원이라는 사회적 공공장소를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안하였다. 본 공모전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미국, 베트남, 이란, 영국 등 15개국에서 총 104 작품이 접수되었다.

▼ The invisible Facemask(디 인비저블 페이스마스크)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도시재생기업’ 모집

2020. 10. 13.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서울특별시가 ‘도시재생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도시재생기업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역 인프라 관리, 주거지 관리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

한다. 대상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지역,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다. 이는 해당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전문가·활동가 등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법인이어야 한다. 예컨대, 사회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법인 또는 지역 소재 기업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또 선정된 도시재생기업에게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회계, 마케팅, 홍보, 법률, 브랜딩 등 10개 분야 전문멘토그룹의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도시재생기업의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최첨단 스마트도시 서울’ 3D·AR로 체험...전시관 개관

2020. 10. 27. | 서울특별시 | 스마트도시정책관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청 지하1층(시민청)에 체험형 ‘스마트서울 전시관’이 개관했다. 전시관은 크게 4 섹션으로 나뉘며 3D, AR(증강현실) 등을 통해 역동적으로 만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비대면 관람이 가능하도록 ‘스마트서울 전시관’ 전용 앱을 통해 전시 가이드를 제공한다. 전용 앱을 설치하면 각 섹션마다 설치되어 있는 비콘이 관람객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해 관람객의 스마트폰에 전시설명을 띄우는 방식이다. 전시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의 삶이 변화되는 도시, 서울’이란 주제 아래, ①서울을 수집하다, ②서울을 살펴보다, ③시민의 삶을 바꾸다, ④함께 만들다 4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 ‘스마트서울 전시관’ 전시 가이드



부산광역시 첫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노후 주거지 재생 본격화

2020. 06. 12. | 부산광역시 | 도시정비과

부산광역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단독주택 2호를 다세대주택 12호로 탈바꿈시켰다. 이번에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준공된 과정동 사업지는 총 3개 필지의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 2명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다세대주택(12세대)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인접한 주거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노후 주거지 재생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총 7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되었으며 착공한 3곳 가운데 1곳이 이번에 준공되었다.

▼ 부산광역시 자율주택정비사업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이끌어갈 청년도시재생사... ‘힘찬 첫발’

2020. 06. 15. | 부산광역시 | 도시재생정책과

부산광역시는 ‘청년도시재생사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청년도시재생사 과정은 청년 스스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현장 위주의 실천적 교육이 주를 이루며, 관내 7개 대학이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했었다. 시는 첫발을 내딛는 청년도시재생사들의 힘찬 발걸음을 통해 부산형 도시재생도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역시 최초,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한다!

2020. 06. 23. | 부산광역시 | 총괄건축기획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2020년 6월부터 총괄건축기획과 내에 ‘부산광역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된다.

부산광역시는 그동안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단계 전문성 부족, 지원체계 부실로 인한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시작으로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설계공모 확대 추진’ 등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부산광역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문을 열면, 공공건축의 품질확보와 공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빈집에 불을 밝힌다! “LIGHT UP!”

2020. 07. 15. | 부산광역시 | 도시재생정책과

부산광역시가 ‘빈집재생 종합대책’인 ‘빈집 LIGHT UP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도심지역의 빈집은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개발 잠재력이 있다는 판단 하에 사회·경제·문화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빈집을 활용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업공간을 조성하며 청년주거공간을 확충하는 등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전문기업으로 부산형 도시재생에 활력 더한다!

2020. 07. 21. | 부산광역시 | 도시재생정책과

부산광역시가 「도시재생전문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연간 5~6천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비롯한 부산광역시의 도시재생사업에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부산형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도시재생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전문기업으로 선정되면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더불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전문(8주과정)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청년도시재생사 사업과 연계한 인재 채용 등 인력 지원도 받게 된다.

부산광역시,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 본격화!

2020. 09. 07. | 부산광역시 | 영상콘텐츠산업과

부산광역시는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계획안의 1단계는 시네마 상징물·거리 조성사업으로, ①야외 공간에 한국 영화 100년의 역사를 재현하는 ‘한국 영화 100년사’, ②비프힐 유리면을 활용해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인터랙티브 아트를 구현하는 ‘영화 속 스크린 체험’, ③대형 LED 스크린에 3D 카메라로 찍은 자신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오늘의 주인공’ 등 체험 콘텐츠로 구성된다. 이어 2단계는 융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더블콘 4개 층을 리모델링하여 ①미디어 스튜디오, ②가상현실(VR) 체험, ③팝업 시네마, ④시네마 라이브러리, ⑤시네마 스트리밍 Zone 등을 조성한다.

▼ 부산광역시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



부산광역시, 공공건축 혁신의 옷을 입히다!

2020. 09. 24. | 부산광역시 | 총괄건축기획과

부산광역시가 ‘2020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에 ‘부산 공공건축 혁신의 옷을 입히다’라는 작품으로 혁신행정상을 수상했다. 부산광역시는 2019년 공공건축 건축기획 전담부서인 ‘총괄건축기획과’를 신설하고 개방직 국장을 선임한 뒤 공공건축 혁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또한, 2020년 6월 광역시 최초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공공건축 건립에 있어 부산광역시의 지역성과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HOPE with HUG 프로젝트, 코로나19 속 따뜻함을 나누는 건축

2020. 09. 25. | 부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사)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주관한 ‘HOPE with HUG 프로젝트’가 39번째 결실을 맺었다. 이번 사업대상지는 신애지역아동센터로, 해당 시설물은 일반주택이었기 때문에 주방이 매우 협소하고 교육공간과 분리되지 않아 급식 환경 위생점검 시 개선 지도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지붕의 노후로 낙하 위험이 있는 등 내·외부에 위험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공사가 진행되어 두 달여 만에 새 단장을 완료했다.

부산광역시에 어울리는 건축물을 소개합니다!

2020. 09. 28. | 부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부산광역시가 ‘2020 부산건축상’ 수상작을 선정했다. 금상을 수상한 ‘민들레유치원’은 옛 부산광역시장의 관사였던 곳으로, 도심 내에 넓은 마당을 가진 큰 규모의 주택이었다. 남쪽에 아파트가 위치해 최대한 건물을 북쪽으로 배치하고, 교실 창문은 커튼월로 제작하여 아이들이 앉아서도 마당을 볼 수 있도록 한 점과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실을 집의 고유명사 격인 경사진 박공형태로 디자인하고, 자연재료 고유의 색 사용과 목재를 주재료로 한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수상 건축물에는 기념 동판이 부착된다.

▼ 2020 부산건축상 수상작 ‘민들레 유치원’



관광 중심보다는 ‘거주민 삶의 질 제고’에 초점!

2020. 11. 03. | 부산광역시 | 도시재생정책과

부산광역시가 ‘2020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선정된 곳은 ‘연제구 연산8동(우리동네살리기)’, ‘해운대구 반여2·3동(일반근린형)’, ‘북구 덕천동(일반근린형)’이다. 먼저, 부산광역시는 연제구 연산8동 ‘마을사랑 연(蓮)정(情) 품은 따뜻한 이불마을’ 사업을 통해 주변 역사자원과 연계되는 정주 환경을 회복하고 지역의 물리적·사회적·문화적 활성화를 도모한다. 다음으로, 해운대구 반여2·3동 ‘반여에 심표와 느낌표를 더하다’ 사업을 통해 문화공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등으로 지역 활력을 회복한다. 마지막으로, 북구 덕천동 ‘공유바람 숙등(淑燈)을 채우다’ 사업으로,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정채된 노후 쇠퇴지역이 지닌 다양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 먹거리 육성, 지역 특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특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한다.

2020 인천광역시 건축상 대상에 ‘인천광역시건축사회관’

2020. 10. 26. | 인천광역시 | 건축계획과

인천광역시는 ‘2020 인천광역시 건축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건축사회관’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천광역시 건축사회관은 어구, 선구, 도료를 취급하던 상점이었다. 낡고 화재로 훼손된 건축물을 인천건축사회가 매입하여 옛 모습을 복원하고 기능에 맞게 리모델링했다.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화재의 흔적이 남은 지붕트러스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벽면을 점토몰탈로 마감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근대 문화·역사건물을 되살려 지역의 역사를 풍부하게 만든 우수 사례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상 선정을 계기로 근대 문화·역사가 깃든 우수한 건축자산 보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0 인천광역시 건축상 대상에 '인천광역시건축사회관'



대구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협력형 도시재생인정사업 선정

2020. 09. 21. | 대구광역시 | 도시재생과

대구광역시는 2020년 1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인정 사업에 달서구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력형 희망 나눔 통합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월성주공2단지 內 유희놀이터에 지상 5층 규모로 건강복지센터, 실버케어센터, 인생이모작센터 및 실내놀이터, 평생교육실 등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된 생활 SOC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이 사업이 임대주택 내 유희 공간을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으로 조성해 공공기관 소유 공간을 도심 내 부족한 생활 SOC 지원공간으로 활용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대구 원도심 재생 스마트 기술 적용 시작

2020. 10. 04. | 대구광역시 | 도시재생과

대구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도시재생연계 리빙랩 사업’에 대구광역시-산·학·연 컨소시엄의 ‘O2O (Online to offline) 기반 시민 케어 및 다문화 커뮤니티 서비스 구축을 위한 리빙랩’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재정지원을 받아 원도심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과 스마트 기술 접목을 위한 리빙랩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활성화와 거주민 케어를 위한 5C(Colorful, Citizen, Care, Cultural, Community) 서비스와 스마트 에코

시스템 설계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구 경삼강영 일대에 ‘스마트 웰터’와 ‘스마트 가로등’을 개발·설치하고 관련 기술 및 제품을 상용화 할 계획이다.

노후도심 재생과 공예산업 두 마리 토끼 잡아

2020. 07. 16. | 광주광역시 | 문화산업과

광주광역시는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공공·문화건축물 부문 대한건축학회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와 남구는 양림동의 노후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펍권마을 주변 낡은 가옥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며 공예산업 특화 공간을 조성해 왔다. 공예특화거리는 판매장, 체험관, 전시장, MBC 오픈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자기·나무·섬유·금속 공예 등 12개 공방이 입주해 관광객들에게 공예문화 체험을 제공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공공건축 설계공모 참여기회 대폭 확대된다

2020. 08. 04. | 광주광역시 | 도시계획과

광주광역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와 관련, 응모자 비용부담 가중 및 심사위원회 비공개 등으로 참여업체수가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공모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①설계공모 대상 확대, ②제출도서 간소화로 비용부담 대폭 경감, ③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④심사결과 전면공개 및 전문위원회 구성 등이다. 시는

이번 설계공모 선진화 방안을 통해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제도가 활성화되고 창의적인 공공건축물 건립을 유도함으로써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사업, 2045 탄소중립 첫 걸음 시작

2020. 08. 04. | 광주광역시 | 건축주택과

광주광역시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을 선정했다. 광주광역시의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은 총 5개 시설로, 화정2동어린이집·효사랑하늘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2개소, 서창보건진료소·구소보건소·화장보건소 등 보건소 3개소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고성능 단열·창호·설비 개선을 통한 에너지성능 향상, 환기시스템 교체 등을 통한 실내 공기질 개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IT 인프라 구축이다. 광주광역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12만톤의 온실가스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건축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 이용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

2020. 09. 16. | 광주광역시 | 도시재생정책과

광주광역시는 동구 산수동 ‘꼬두메, 향기가득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2020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꼬두메, 향기가득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건축 중 붕괴돼 여러 해 동안 방치된 위험건축물을 ‘꼬두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꼬두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마을사랑채, 건강증진센터, 커뮤니티 플라워 힐링가든 등 주민 친화적 여가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며 마을 거버넌스 구축, 공동체 활성화, 협동조합 구성 사업 등이 함께 추진돼 광주광역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그동안 생활편의시설 부재로 불편했던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24회 광주광역시건축상 수상작 발표

2020. 10. 22. | 광주광역시 | 건축주택과

광주광역시는 제2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을 선정했다. 광주건축사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최근 5년 이내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주거부문, 주거부문 작품을 선정했다. 비주거부문 최고상인 금상에는 남구 양림동 근린생활시설인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선정됐으며, 주거부문은 금상 수상작 없이 은상, 동상만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건축상을 수상한 모든 작품에는 건축상 동판을 제작해 부착하고, 설계건축사와 시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 제2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조성사업’



대전광역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공모 잇달아 선정

2020. 08. 18. | 대전광역시 | 주택정책과

대전광역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공모결과 동구 예빛어린이집 등 11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①대전광역시 제1노인전문병원 등 3건, ②동구 예빛어린이집 등 2건, ③중구 중구보건소 등 2건, ④서구 목련어린이집 등 3건, ⑤대덕구 새뜸어린이집 1건으로 2021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제22회 대전광역시 건축상 금상에 '월평도서관'

2020. 10. 20. | 대전광역시 | 주택정책과

2020년 '대전광역시 건축상' 금상에 '월평도서관'이 선정됐다. 금상에 선정된 '월평도서관'은 남측 공원과 내부공간의 연계성을 통해 도심 속 도서관의 단점을 보완했으며, 공원 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도시경관 분야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어린이 열람실과 외부공간의 연계가 우수하고 용도별 특성에 최적화된 인테리어가 돋보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 2020년 대전광역시 건축상 금상 '월평도서관'



울산광역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시행

2020. 06. 26. | 울산광역시 |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에서는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적용 기준은 환경성능 부문, 환경관리 부문, 에너지성능 부문 등이다. 적용 방법은 건축물의 주거와 비주거 부분을 구분하고,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20년 울산광역시 건축상 '담힌집, 열린집'대상 선정

2020. 09. 24. | 울산광역시 | 건축주택과

'2020년 울산광역시 건축상' 대상에 '담힌집, 열린집'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을 받은 '담힌집, 열린집'은 (주)온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작품으로 울주군 두동면 두동로에 위치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건축재료에 대한 설계자의 실험정신과 노력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 받았다. 또한 건축주의 니즈가 잘 구현되었으며, 폐쇄성과 개방성이 융합된 주거평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판이 부착되고 건축주와 설계자 등에게는 상패가 수여된다.

▼ 2020년 울산광역시건축상 대상 '담힌집, 열린집'



울산광역시 '도시경관기록 온라인 전시회' 개최

2020. 10. 21. | 울산광역시 | 도시재생과

울산광역시는 '2020년 도시경관기록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 '2020년 기록자료로 본 울산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울산광역시 도시경관기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총 220여 개의 기록물을 통해 울산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해 보고 지역의 변화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경관 및 공공공간

잠실 한강공원 수영장, 자연성회복 및 사계절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

2020. 06. 09. | 서울특별시 |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는 ‘잠실 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설계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국제설계공모로 진행되었으며, 총 11작품이 참가, 5작품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최종심사를 통해 결정된 당선작은 “Wonderful Land-환상의 대지 그리고 경이로운 공간”이다. 이 작품은 한강 주변의 자연적 요소가 직·간접적으로 결합된 경관을 제공함과 동시에 유지·관리·통제가 용이한 도심형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두터운 자연적 경계를 통한 장소 만들기, 사계절 프로그램 재구성, 한강과의 자연적 연결을 위한 지형설계, 시·공간적 맥락을 반영한 식재를 대상에 녹여냈다.

▼ 서울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Wonderful Land-환상의 대지 그리고 경이로운 공간’



서울특별시, 녹사평역 내 용산공원 소통공간 마련... ‘용산공원 플랫폼’

2020. 07. 06. |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국 전략기획과

서울특별시는 녹사평역 내 공간을 활용하여 용산공원 시민 소통공간인 ‘용산공원 플랫폼’ 조성을 완료했다. 녹사평 ‘용산공원 플랫폼’에서는 용산기지 캠프킴 ‘용산공원 갤러리’, 2020년 10월 개관한 ‘용산도시기억전시관’과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공원 조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용산공원 플랫폼’



서울특별시 ‘에코스쿨’, 생활밀착형 유휴공간 활용 녹화모델로 높게 평가

2020. 07. 20. | 서울특별시 | 푸른도시국 조경과

서울특별시는 ‘에코스쿨(Eco-School)’ 사업이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의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공간 활용 분야’에 출품해 국토연구원장상으로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밝혔다. ‘에코스쿨(Eco-School)’사업은 서울 초·중·고교 328개소를 학교구성원, 시민, 조경분야 전문가와 함께 협력하여 7년 동안 노후된 학교의 옥외공간을 지역거점 녹지 및 소통공간으로 재창조한 사업으로,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시재생 녹화모델로서 경관을 바꿔왔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컨테이너형 복합문화시설 ‘비콘그라운드’가 온다!

2020. 08. 04. | 부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부산광역시는 망미동 수영 고가도로 하부 유휴공간에 조성된 컨테이너형 복합문화시설인 비콘그라운드의 상업시설 일부와 창업공간, 문화공간을 우선 개장한다. 비콘그라운드는 ‘주민들의 회의실과 휴게실로 사용되는 커뮤니티그라운드’, ‘예술창작공간과 패밀리레스토랑이 입주하는 패밀리데크’, ‘운영사무실과 이벤트공간이 있는 비콘스퀘어’, ‘소매점·식음료 상가가 입주하는 쇼피 그라운드’, ‘야외이벤트 공간인 플레이그라운드’, ‘청년소셜벤처기업이 입주하는 아트갤러리’ 등 6개 구간으로 구분되며, ①공유시설 5개실, ②문화시설 8개실, ③청년창업시설 11개실, ④상업시설 27개실의 전체 51개실로 조성하였다.

▼ 부산광역시 복합문화시설 ‘비콘그라운드’



부산광역시,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전국 최대 국비 30억 원 확보

2020. 10. 21. | 부산광역시 | 걷기좋은부산추진단

부산광역시는 「2021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공모사업」에서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10곳이 선정되어 2021년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①‘보행환경 개선지구’의 신규사업으로 ‘해운대 온천길’, 계속사업으로는 ‘연산교차로 햇살거리’ ②‘보행자 우선도로’는 ‘동구 정공단로’ 등 4곳을 확보하였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3년 연속 선정되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와 숲이 공존하는 인천... 도시 숲 본격 추진

2020. 10. 28. | 인천광역시 | 녹지정책과

인천광역시가 ‘도시와 숲이 공존하는 도시’로 탈바꿈한다. 도시 숲이 대거 조성되면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자연친화적인 여가생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시바람길 숲’은 도시외곽 산림이나 숲에서 생성된 신선하고 시원한 공기를 도심 주민생활공간으로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시는 바람의 확산을 통해 도시의 열섬화를 방지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신암동 옛 대구기상대부지 문화 휴게공원으로 조성

2020. 06. 21. | 대구광역시 | 도시정비과

대구광역시와 동구청은 옛 기상대 부지 및 노후 불량주거지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 휴게공간인 기상대기념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존 기상대 건물은 내부 리모델링 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재탄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상대기념공원은 크게 입구마당, 바람의 언덕, 물의 정원, 만남광장, 건강마당 등의 테마를 가진 구역별로 조성된다. 휴게기능과 교육기능 테마로 조성된 입구마당, 바람의 언덕, 건강마당 구역은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만남광장 및 화합마당과 물의 정원 구역은 매년 평화시장에서 개최되는 치맥 페스티벌 등과 연계한 공간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 대구기상대부지, 문화 휴게공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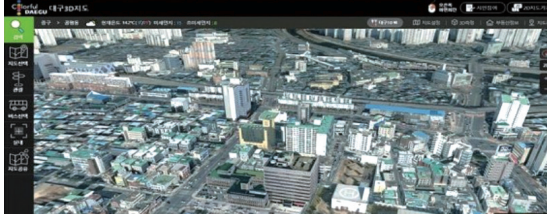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경관 일조권, 행정 생활정보 결합 3D지도 이용

2020. 09. 27. | 대구광역시 | 토지정보과

대구광역시는 스마트 3D지도를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로 현실세계와 가장 가깝게 만들어낸 ‘대구 3D지도’는 모든 지형과 건물을 3D로 재현하여 마치 공중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대구의 구석구석을 3D로 만날 수 있는 인터넷 지도이다. 3D지도에서는 클릭만으로 건물 어디서든 시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물높이, 땅높이, 토공량, 경사도 등 3차원 측정도 가능하다.

▼ 대구광역시 3D지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공모 신청하세요

2020. 07. 26. | 광주광역시 | 재난예방과

광주광역시는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2020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공모에 참여할 시설을 접수한다. 중앙선정 심의회는 놀이기구 안전성, 다양한 놀이문화와 세대 간 참여, 열린공간을 지향하는 디자인과 융합된 안전성(CPTED)을 고려해 ‘안전관리 실행’, ‘유지관리·운영’, ‘아동발달연계’, ‘안심 디자인’, ‘공동체 활성화’ 등 5개 분야를 심사한다.

전일빌딩245,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최우수상

2020. 09. 10. | 광주광역시 | 문화기반조성과

전일빌딩245가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 이 건물은 52개월간의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시민문화공간인 시민플라자, 문화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광주콘텐츠허브, 5·18기념공간인 19800518, 전망·휴게공간인 전일마루 등 광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품은 시민역사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2020년 5월 11일 개관했다. 광주광역시는 더불어 원형보존, 각층 용도, 콘텐츠 구성, 동선 등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며 공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에서 전일빌딩245는 옛 전일빌딩의 역사성과 장소성이 담긴 공간을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제공해 다음 세대들이 역사를 기억하고 공유하며,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나갈 잠재력이 큰 공간으로 만든 기획과 운영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최우수상 ‘전일빌딩245’



보문산을 중부권 대표 도시여행지로

2020. 06. 16. | 대전광역시 | 관광마케팅과

대전광역시는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조성 계획의 주요 골자는 ①즐거움, ②힐링·행복, ③전통 문화, ④주민참여의 4대 전략과 14개의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담고 있으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완성할 계획이다. 먼저 ①‘즐거움’ 전략사업 실행을 위해 보문산 전망대 조성, 전망대~오월드 연결, 오월드 시설현대화 사업 등 3개 과제를 제시했다. ②‘힐링·행복’ 전략사업에는 대사동 놀자 모험 숲 조성, 호동 자연친화형 가족파크 조성, 보물을 담은 마음 숲길 사업, 대사지구 편의시설 확충, 무수동 치유의 숲 조성 등 5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③‘전통문화’ 전략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효 문화뿌리마을 (제2뿌리공원) 조성, 이사동 유교 전통의례관 건립, 전통(한식)공원 조성 등 3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④‘주민참여’ 전략사업으로는 대사지구 지역상권 활성화, 주민주도형 보문산 대축제 추진, 생활관광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3개 과제를 담아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 참여와 실행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대비 행정절차 마무리!

2020. 06. 26. | 대전광역시 | 공원녹지과

대전광역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여 “도시경관 보존과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도시공원 보존대책 수립과 함께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市에서 마련한 세부적인 장기미집행 해소방안은 도시공원

26개소 중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21개소를 공원으로 유지함으로써 도심 속 녹색공간을 상당부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으며, 물리적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낮고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보존이 가능한 지역과 공원으로서는 기능적 역할 수행이 어려운 공원 등 5개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전광역시, 공공미술 ‘우리동네 미술’ 프로젝트 추진

2020. 08. 10. | 대전광역시 | 문화예술정책과

대전광역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5개 자치구가 약 4억 원씩의 사업비를 교부받아 추진하며, 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스토리를 반영하는 다양한 유형의 미술활동을 추진한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①벽화, 조각, 회화, 미디어 아트 등 작품 설치형, ②문화적 공간 조성 및 전시형, ③거리 편의시설 조성 등 도시재생형, ④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형, ⑤지역 기록형(사진, 다큐멘터리), ⑥다수유형 복합추진형 등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추진 가능하다.

삭막한 건물옥상을 숨 쉬는 생태공간으로

2020. 09. 10. | 대전광역시 | 공원녹지과

대전광역시는 2021년 환경부 자연보전분야 국고보조사업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대상지는 대전고등법원인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의 일환으로 대전광역시가 2020년 환경부 공모에 응모해 선정됐다. 사업은 습지, 초지 등 생물 서식 공간, 생태학습 공간,쉼터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며 2021년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중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최대 규모다.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시동

2020. 10. 19. | 대전광역시 | 농생명산업과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금고동 582번지 일원 부지에 ‘반려동물공원’ 조성 공사를 착공했다. 반려동물공원 야외에는 동물 놀이터, 훈련장, 잔디광장, 산책로 등이 조성되며, 실내에는 각종 교육시설과 콘텐츠 전시실, 셀프펫사위실, 휴게음식점 등이 들어선다. 특히, 반려동물공원은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공원에서는 보호자 펫티켓 교육, 반려동물 기본교육 및 문제행동 교정, 어린이 동물매개 활동, 반려동물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하절기에는 야외수영장도 운영될 예정이다.

▼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조감도



울주군 온양읍 ‘발리정원’ 울산광역시 제3호 민간정원 등록

2020. 06. 03. | 울산광역시 | 생태정원과

울산광역시는 ‘발리정원’을 울산광역시 제3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 현재 한옥카페와 휴게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발리정원은 다양한 수목과 초화는 물론 조각품과 수석 전시실, 벽면 암각화 등을 배치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전통, 문화, 식물 등을 주제로 한 3개의 정원과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다양한 수석들이 전시되고 있으며 개성있는 조각품들과 수목이 어우러져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해 민간정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및 공장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 사업’ 7월부터 확대 시행

2020. 07. 15. | 울산광역시 | 도시재생과

울산광역시는 ‘2020년 공동주택 및 공장 색채 디자인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울산소재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국가·일반 산업단지·농공단지 등에 위치한 공장이며, 도장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된 대상에 한하여 지원된다. 지원 대상이 되면, 전문디자이너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주변 환경, 브랜드 분석 등을 통해 색채디자인을 연구·개발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 도안을 제안한다.

‘큰 평화, 태화강 국가정원 프로젝트’ 추진

2020. 07. 17. | 울산광역시 | 태화강국가정원과

울산광역시가 ‘큰 평화, 태화강 국가정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주요 사업에는 ①백리대숲 스카이라이프, ②태화강가든 브릿지, ③실내식물원, ④국가정원 랜드마크(남산전망대) 건립, ⑤민간·공동체정원 발굴 및 지원 등이다. 울산광역시는 이를 통해 태화강 국가정원만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이용 편의가 증진되면 인지도 상승과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사업추진에 따른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

서울특별시, 제11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수상작 발표…전농애향 등 12작품

2020. 10. 30.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는 제11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총 12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①‘마을만들기’ 분야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전농애향: 전농동에 사랑을 담다”는 노년층 비율이 높고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이 없는 열악한 마을 과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나간 점, 마을의 공간적·인문사회적인 분석 등 기초자료 조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민·관·학의 협력모델을 제시한 점, 몇 가지 대안 프로그램을 제시한 점 등 당장 마을에 적용되어도 손색없는 실현성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②‘공동체활성화’ 분야 우수상으로 선정된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 숲속마을”은 공모전 취지에 부합하는 조사 분석 및 고민이 상세하고, 공동이용시설 소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에 확장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공간 소개 홍보 영상으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되었다.

노인일자리 활용한 안전한 마을 조성 나선다!

2020. 08. 02. | 부산광역시 | 노인복지과

부산광역시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활용해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동네 곳곳의 위험 요소와 생활 불편 요소를 발굴하는 ‘시니어 마을안전지킴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구·군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방범(순찰)활동, 청소년 유해장소 감시 및 모니터링, 안심귀가 길서비스, CCTV 안전시설 확인 등의 범죄예방에 필요한 지원활동과,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관과 협력하여 독거노인, 고독사 위기가구, 소년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전 지원, 노후 주거시설 수리, 전기·가스 안전장비 설치 지원, 파손·위험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의 공간, 행정의 공간을’ 마을 공유공간으로

2020. 09. 08. | 대전광역시 | 지역공동체과

대전광역시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에 따르면 2019년에 공유 부엌, 마을카페, 마을배움터, 마을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된 11곳의 시민공유공간은 마을의 공유공간으로 자리 잡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2020년 기존 선 조성 방식을 개선해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과 시민공유공간 조성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사전 공유한 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안전부 ‘2020년 우수마을기업’ 선정

2020. 09. 08. | 울산광역시 | 사회혁신담당관

울산광역시는 ‘2020년 우수마을기업’ 심사에서 울주군 마을기업인 이음공동체 협동조합이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울주군 웅촌면 대북리에 위치한 이음공동체 협동조합은 목공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이음공동체 협동조합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심사에서 입상을 차지해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2021년부터 마을뉴딜사업 재원 ‘마을세’ 도입

2020. 10. 16. | 울산광역시 | 세정담당관

울산광역시는 ‘주민세’를 우리마을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마을세’를 2021년부터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세의 도입으로 인해 주민이 납부하는 세액의 변동은 없다. 마을세는 주민세 징수액을 읍·면·동별로 환원,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울산광역시는 최근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의 요구가 많아지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세’는 이러한 주민 주도적인 마을자치와 주민참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서울특별시, 모든 시민 배려·포용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건물·시설에 의무적용

2020. 09. 07. | 서울특별시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가 ‘유니버설디자인’을 전면 확대하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2020~2024)」을 처음으로 수립, 단계별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모두가 존중되는 사람 중심 도시’라는 비전 아래 ①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화, ②유니버설디자인 전담기구 설치 운영, ③성공모델 개발 축적, ④전 사회적 확대 및 제도개선 4개 분야로 추진된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조례로 추진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도가 전국적·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도시인프라의 진화…서울특별시, 신호등, CCTV 등에 ICT 결합한 스마트폴 시범설치

2020. 09. 14. | 서울특별시 |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는 도로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공 와이파이, 지능형 CCTV, IoT 같은 ICT기술을 결합시킨 ‘스마트폴’을 구축한다. 서울특별시는 다양한 도로 환경에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민체감 스마트폴(smart pole)’의 10개 기본모델 개발을 완료하여, 10월부터 성동구·종로구 내 4개소에 총 15개를 시범 설치·운영한다. 시범설치 되는 4개소는 청계천변 청계1가 도로 일대, 한양대 젊음의 거리, 중랑천변 송정제방길, 성동구청 일대 도로변 왕십리역 광장이다. 서울특별시는 교체 시기가 도래한 도로시설물을 스마트폴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스마트 인프라의 설치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범죄율 감소, 보행 활성화, 도시미관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스마트폴 시범설치



2020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우수디자인 57점 발굴!

2020. 08. 21. | 부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부산광역시는 ‘2020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심사에서 ‘지지 않는 벚꽃길’을 대상 작품으로 선정했다. ‘지지 않는 벚꽃길’은 부산 벚꽃 명소의 수목거치대에 손쉽게 이용 가능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수목거치대 결합형 벤치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특히, 벚꽃을 모티브로 한 벤치 디자인을 통해 사계절 내내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제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고등부 최우수는 ‘Harmony Distance’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벤치를 강렬한 불꽃 형상으로 디자인하였다. 특히, 평소에는 붙여놓았다가 필요하면 의자 간 거리를 넓혀 공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만든 시설물 디자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2020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Harmony Distance’



부산의 모든 해수욕장에 2024년까지 ‘지능형 CCTV’ 도입

2020. 10. 22. | 부산광역시 | 해양레저관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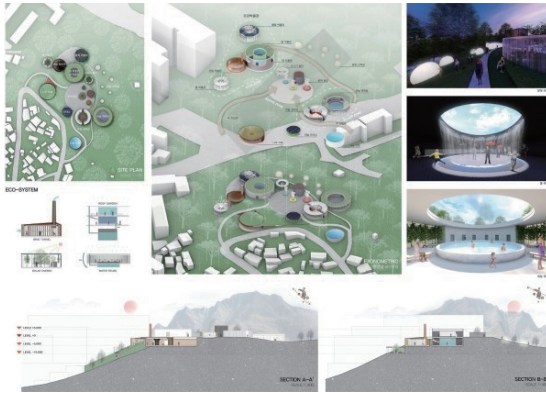
부산광역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수욕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안전요원을 해수욕장마다 고정 배치하며, 희망일자리 인력도 추가 확보한다. 안전사고 주의 표지판과 위험지역 표지판을 보강하며, 너울성 파도와 입수 주의를 경고하는 안내방송도 진행한다. 또한, 수상구조요원을 7개 모든 해수욕장에 확대 배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국비 총 29억 원을 신청한다. 특히 위험지역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안내·경고 방송시스템인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이를 보완해 나간다. ‘지능형 CCTV’는 2021년 상반기 중 다대포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에 우선 설치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2024년까지 전 해수욕장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이버, 서핑 등 수상레저의 사고에도 대비한다. 5G 기술을 이용하여 레저객이 착용한 개인 안전장비의 수압, 맥박 등을 감지하여 위급 시에 자동으로 관리자에게 신호를 송출하는 안전플랫폼을 구축한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은 손목시계형의 개인용 수중 위험신호 발신기와 지상 수신기 등 안전장비 시스템 개발을 기획 중이며 2021년 3월 국비가 확정되면 본격 개발에 들어가 2025년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제12회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당선작 발표

2020. 07. 10.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제12회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신나는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49개 대학교가 참여했으며 총232개 출품작품 중 60점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대상(大賞)에는 공간디자인 부문에 출품한 나우동인건축사 사무소 김도연 씨의 ‘CITY OASIS’가 선정됐다. 대상 작품은 대동하늘공원에 원시 오두막을 건축 요소로 해석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하늘경로당, 소나기 심터, 풀꽃 박물관, 나무 카페 등을 제안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제12회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대상 ‘CITY OASIS’



대전광역시, ‘제18회 옥외광고대상 공모전 입상작’ 발표

2020. 09. 21.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가 제18회 대전옥외광고대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창작모형 부문 작품은 ‘목향’, 창작디자인 부문 작품은 ‘꽃본 나비’로 각각 대상과 금상을 수상했다. ‘목향’은 입체액자형 케이스 형태로 만들어진 공예작품으로 자연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정교하게 제작한 수많은 꽃들 사이에 상호명을 입체적으로 제작해 광고물로서의 기능과 출력자의 노력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됐다. ‘꽃본 나비’는 건물의 곡각지 3면을 조화롭게 이용한 디자인으로 넝쿨식물을 좌우로 배치하고 중앙에 꽃과 나비 상호명을 전체적으로 조화시켜 옥외광고물로서의 주목성을 유도했으며, 간결한

표현으로 옥외광고물디자인의 수준을 높인 디자인으로 심사위원들의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다.

▼ 제18회 옥외광고대상 수상작 ‘목향’



울산광역시, ‘디지털 도시 울산’ 슬로건 공모전 우수작 선정

2020. 07. 20. | 울산광역시 | 정보화담당관

울산광역시는 ‘디지털 도시 울산’ 슬로건 공모전 결과 ‘울산, 디지털을 품다! 미래를 열다!’를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는 직원 선호도 조사와 정보화위원회에서 상징성, 적합성, 활용성, 창의성 등을 심사해 최종 5편의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울산, 디지털을 품다! 미래를 열다!’는 울산과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를 첫 소절에서 강조하고 직관적으로 표현하여 상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스마트 라이프, 디지털 울산’, ‘스마트 라이프 인(Smart Life in) 울산’이 선정되었다. 장려상은 ‘미래를 여는 스마트도시, 울산’, ‘5지(G)시대 울산, 디지털 도시로 통하다’가 선정되었다.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건축 및 도시

천안시, 주거급여 수선유지 집수리사업에 8억 원 투입

2020. 06. 18. | 천안시 | 건축디자인과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주거취약 계층 수선유지 집수리사업 추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안시 건축디자인과 주거복지팀 관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 사업 1부 관계자, 수선유지급여 시행 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 업체는 시행단계에서 수급자 개별욕구 및 사업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개선을 개선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천안시, ‘문화도시’ 사업 추진 본격화

2020. 06. 30. | 천안시 | 문화관광과

천안시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천안 문화도시 사업이 충청남도 정기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천안 문화도시 사업은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을 목표로 ‘문화적 도시재생’, ‘글로벌 브랜드 구축’,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등 3개 분야 11개 사업 내용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 ①시민자율형·농촌연계형·생활밀착형 시민제안 공모사업인 ‘문화적 도시재생 프로젝트’, ②문화공간 리모델링 및 지원사업인 ‘공간스위치’, ③생활문화 및 순수예술 활동가 창업 활동 지원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천안시, 천안역세권 활성화 본격 가동

2020. 07. 22.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는 경제, 문화, 도로, 교통, 복지 분야 등 관련부서, 협력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협업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관련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천안역 지하도상가 공간에 대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중 복성,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천안역 인근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원도심 상권 활성화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사업 등 각 부서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협업하는 방법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시,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20. 10. 16.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는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천안시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활발하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행정의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추진한 성과로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천안시는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완료해 따뜻한 주거복지 제공 및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원도심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산성, 첨단기술로 재탄생!

2020. 07. 30. | 공주시 | 문화재과

충청남도 공주시 공산성에 방문자센터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공산성 방문자센터는 공산성의 가치와 역사, 문화, 관광 등에 관한 정보를 첨단 ICT 기술로 관람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건립됐다. 공산성 방문자센터는 지상 1층 한옥 목구조로 건립됐으며, 내부에는 관광안내소, 공산성 역사관, 편의시설 등이 조성됐다. 특히, 방문자센터 내 공산성 역사관은 안내 공간 및 휴게공간과 첨단 전시기법을 반영한 전시실, 디오라마관, 영상관, 체험실 등 총 6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공주시, 리모델링 스쿨 1단계 ‘공간이야기 발굴단’ 모집

2020. 09. 18. | 공주시 | 문화체육과

공주시가 공주 전역을 대상으로 유휴공간을 조사하고 이야기를 수집·발굴하는 리모델링스쿨 1단계 ‘공간이야기 발굴단’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역 거점 공간 개발의 원동력을 확보하고, 16개 읍·면·동의 주민리더를 선발해 공간 이야기를 발굴하는 문화도시사업이다. 공주시 문화도시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간의 구조와 공간별 특징을 조사 및 기록하고, 공간을 둘러싼 각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과정을 시민이 주도하여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문화도시 공주의 이야기를 공간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문화도시 사업의 다양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공주시,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2020. 10. 15. | 공주시 | 도시정책과

공주시가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공주시는 ‘함께하는 원도심, 머무르는 주민’이라는 주제로 마을환경개선 등 4개 분야 41개 사업의 주민주도 공모사업을 통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보령시, 도시재생 심포지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20. 08. 21. | 보령시

보령시는 도시재생 심포지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보령시는 도시재생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도시재생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으로 기반을 착실히 닦아오며 ①도시재생대학 및 마을학교 운영, ②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참여, ③도시재생 역량강화 현장포럼 및 워크숍 개최, ④지역 자원을 활용한 무지개 플리마켓 운영 및 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왔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도시재생 사업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2020년까지 아산 배방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600호 건설

2020. 06. 02. | 아산시

아산시 배방읍 복수리에 들어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충청남도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신혼부부 대상 임대아파트로 지하2층, 지상 25층, 60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아산시는 이로 인해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산시, 제5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우수 공공기관 선정

2020. 10. 29. | 아산시

아산시가 ‘2020년 제5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부문별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신창면 안심읍내길 조성’, ‘온양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저화질 방범용 CCTV전면교체’ 등 분야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결과다. 지역 내 범죄 취약지역에 밝고 안전한 환경을 구현해 주민들의 체감안전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공로가 인정됐다.

논산시, 2020 대한민국환경대상 수상 ‘청정 논산’ 입증

2020. 06. 10. | 논산시 | 환경과

논산시가 ‘제15회 2020 대한민국환경대상’ 대기환경부문에 대상 상을 수상했다. 논산시는 ①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 설립 운영, ②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③클린논산매니저 도입을 통한 쓰레기 노천소각 단속 등 친환경적인 접근 방법과 노력을 발판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시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논산시 선사인 스튜디오,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도시 반열 올라

2020. 09. 17. | 논산시 | 관광체육과

논산시를 대표하는 선사인 스튜디오가 ‘이색지역명 40선’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선사인 스튜디오는 드라마촬영지임에도 불구하고, 개화기 대한제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독특한 풍광에 논산시가 보유한 호국의 이미지를 더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향후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을 통해 선사인랜드와 함께 전 국민의 발길을 끄는 거대한 관광단지가 조성될 가능성, 그리고 논산시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2020. 08. 25. | 계룡시 | 문화체육과

계룡시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신축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림의 출품작을 선정했다. 계룡시에서는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 정보 교류와 진로탐색·직업체험 등 양질의 교육 공간 제공을 위해 신도안면 남선리 일원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결정했다. 시는 지역 청소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으며 ‘청소년직업체험 멘토강연’, ‘실내외 클라이밍 시설’ 등 5개 제안을 선정했고, 선정된 제안은 향후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이다.

▼ 계룡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림’



금산군, 살고싶은 금산만들기 1천 518억 원 투입

2020. 07. 09. | 금산군 | 기획조정실

금산군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총 1천 5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생활편익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상·하수도 시설 확충, 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주거복지 개선 사업 등 환경 개선과 정주권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무게를 뒀다. 이 밖에 ①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6개 분야, ②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③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④금산읍, 추부면 공영주차장 조성, ⑤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 ⑥가로등 시스템 개선 등도 순항 중이다.

금산 을지병원 행복드림센터로 거듭난다

2020. 09. 17. | 금산군 | 기획조정실

금산군에 따르면 ‘금산 을지병원 리모델링사업’이 국토교통부 2020년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방치돼 있던 폐병원 노후건축물이 친환경 마감재 및 고효율 자재 사용으로 에너지절감 친환경 시설로 거듭나게 된다. 건물 리모델링 외에도 스마트 공영 주차장 조성, 주민쉼터 등을 조성해 원도심 기능회복과 주민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부여군,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등 지원사업 선정

2020. 06. 16. | 부여군 | 군정홍보팀

부여군이 '2020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부여군은 2016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년간 운영비를 지원받았으며, 이후 2020년까지도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전문가인 총괄 계획가를 운영하고 있다. 부여군은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서 민간전문가 운영 경험과 실적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여군, 2021년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 264억 원 규모 최종선정

2020. 09. 18. | 부여군 | 군정홍보팀

부여군은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부여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부여읍 가탑리 부지에 1단계 사업으로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에 평생학습기능과 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를 복합화한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여군의 랜드마크가 될 도서관 주변 중앙광장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가족중심의 여가문화와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부여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 사업 대상지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정상궤도 오른다

2020. 07. 27. | 청양군

청양군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가족문화센터는 열악한 보육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돌봄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중심 문화공간이다. 청양군은 여기에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을 갖출 계획이다. 평생학습관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며, 학습실을 비롯해 다목적 소통·교류 공간을 배치할 예정이다.

청양군, 2021년부터 정산다목적복지관 건립

2020. 09. 24. | 청양군

청양군이 2021년 정산다목적복지관 건립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게 됐다. 이로써 청양군은 2019년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건립사업 선정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하게 됐다. 청양군은 정산중 폐교 부지를 매입한 뒤 주민건강센터와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설 다목적관 1동과 체육센터 1동을 갖출 예정이다. 또 건립 후 통합 건강관리, 취약계층 돌봄, 문화 예술분야 프로그램 및 공연, 학교폭력 예방, 노후설계 등 연령대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홍성군, 새로운 천년역사 담을 청사건립 첫 걸음 떼다!

2020. 07. 20. | 홍성군

홍성군은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 및 회의를 가졌다. 추진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방의회 의원, 읍·면 대표 및 사회단체장 등 총 50인으로 구성해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에 착수한다. 홍성군은 신청사 건립TF팀과 건립추진위원회 발족으로 신청사 건립에 한층 더 속도를 내 2020년 8월 초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2024년 개청을 목표로 2022년 상반기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홍성군 가족센터, 2021년 상반기 “첫 삽” 뜬다!

2020. 09. 15. | 홍성군

홍성군 복합문화공간 ‘가족센터’가 2021년 상반기 첫 삽을 뜬다. 이번 용역은 2020년 2월 설계공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았으며, 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회, 경관심의 자문, BF인증 및 녹색건축, 녹색에너지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설계(안)를 제시하였다. 가족센터는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364번지 일대에 야외놀이터, 물놀이장, 실내 육아놀이시설과 작은도서관 등 가족 모두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홍성군 가족센터’ 조감도



예산군, 구도심 활성화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박차’

2020. 06. 05. | 예산군

예산군은 예산읍 권역에 도시재생뉴딜사업 ‘함께 이어가는, H2O공동체 배다리마을 우리동네살리기’와 ‘일생을 행복하게 동행(同行)하는 예산 주거지 지원형’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예산군은 주교1리 일원에 2019년부터 ①생명발전소(커뮤니티센터) 건립, ②게스트하우스 건립, ③이음창작소 건립, ④안심골목길, 안전담장길 등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예산3리 일원에 2020년부터 4년간 302억 원을 투입해, ①옛 군청사를 활용한 행복주택 건립, ②동행커뮤니티센터 건립, ③돌봄문화센터 건립, ④청년창업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⑤안전안심 골목길 등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생활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예산군,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체계적인 관리 나선다

2020. 07. 08. | 예산군

예산군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에 나선다. 군은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기관을 지정하고 점검자가 점검 결과를 예산군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은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 중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하도록 했다.

예산군,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2020. 09. 16. | 예산군

예산군이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결과 사업에 선정되었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예산읍, 봉산면, 고덕면 일원 공공시설, 주택 등 178개소에 태양광설비 144개소(691kW), 지열설비 34개소(595kW)를 설치하게 되어 이로 인해 연간 약 1억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거두는 등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예산군, 2021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최종 선정

2020. 09. 28. | 예산군

예산군은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서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구 충남고속 정비공장 부지에 균형발전사업비를 포함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과 연계한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을 본격 조성하게 된다. 예산군은 이 사업을 통해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청년타운,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주거지주차장 등이 조성되어, 청년·신혼부부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군, ‘예산1100년 기념관’ 제로에너지 시설 공모 사업 최종 선정

2020. 10. 29. | 예산군

예산군이 2020년도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군은 기금 10억 원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받고 고단열, 고효율설비, 태양광패널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예정이다. ‘예산1100년 기념관’은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수영장이 포함된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역사박물관 등이 복합된 건물로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예산1100년 기념관’ 조감도



예산군, 충청남도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에 10개 사업 선정

2020. 10. 29. | 예산군

예산군은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에 10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며 군은 ①예산항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②예산1100년기념관 조성, ③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④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 ⑤내수면 수산생태보전기반 구축 등이 선정됐다. 또한 ①예산군 선진농업기반 조성, ②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③삼교천 체육공원 조성, ④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 ⑤예산1100년 사람길 조성 등 모두 10개 사업이 포함됐다.

태안군,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7개 사업 선정 총 사업비 577억 원!

2020. 08. 12. | 태안군

태안군이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태안군은 ①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②가족 복합커뮤니티센터, ③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 ④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 ⑤태안 청년 창업지원, ⑥태안관광 서비스체질 개선, ⑦인공지는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등 총 7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균형발전사업 선정에 따라, 앞으로 태안군은 안전교육 및 해양레저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사업’, 도·농 상생 농공단지인 ‘태안 제2농공단지’, 인공지는 연구개발(R&D) 사업 육성으로 선순환적 지역 발전 역할을 할 ‘인공지는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태안군, ‘어린이는 창의력 쑥쑥! 엄마아빠는 문화생활!’ 가족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속도낸다!

2020. 09. 25. | 태안군

태안군이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한다.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 센터’는 지상 2층 건물에 ‘가족생활문화센터’와 ‘어린이문화센터’가 함께 들어서게 되며, 주민동호회실, 다목적홀, 다문화가족 소통공간, 작은도서관, 창작스튜디오, 키즈 스포츠실, 체험실, 어린이수영장 등으로 구성돼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경관 및 공공공간

천안시, 움직이는 ‘박스 정원’ 등 조성

2020. 06. 16. | 천안시 | 공원녹지과

천안시가 능수버들공원 외 2개소 공원에 ‘움직이는 박스정원’을 조성했다. 암석형과 혼합형으로 구분된 총 66개의 이동형 박스정원에는 에메랄드그린, 수국, 매자 등 10종의 관목과 가우라, 청사초, 코레우리의 25종의 화초 등 다채로운 식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이 외에도 천안시는 천변공원 내 육교에 난간걸이 화분을 설치해 화사한 꽃의 시각적인 효과를 더하고, 수종의 꽃을 식재해 풍성하고 밝은 이미지로 공원을 탈바꿈시켰다.

▼ 천안시 움직이는 ‘박스 정원’



천안시, 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본격화

2020. 06. 25. | 천안시 | 산림휴양과

천안시가 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성성동일원에 공원을 조성하고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공원시설로는 숲정원둘, 놀이숲, 한들숲마당, 전망마당 등의 커뮤니티마당과 푸른숲길, 문화숲길, 건강젊음길 등의 숲길, 숲놀이터, 전망쉼터, 산책로, 생태계류 연못, 운동시설 등이 들어선다. 비공원시설로는 공동주택과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도로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주시,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우수상 수상

2020. 06. 15. | 공주시 | 건설과

공주시가 ‘2020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업의 효과성과 안정성, 환경성, 주민참여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평가 결과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의 구자골 소하천이 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구자골 소하천은 자연석 쌓기와 자연형 여울 설치 등 환경 친화적인 하천공법을 적용 시공했으며, 하천변 쉼터 조성 및 꽃 식재, 제초 작업 등 지역민들의 자율적인 유지 관리로 아름다운 수변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

▼ 공주시 정안면 ‘구자골 소하천’



공주시, 전국 최초 ‘어르신 놀이터’ 조성한다!

2020. 07. 15. | 공주시 | 경로장애인과

공주시는 ‘충남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 공모사업에 공주시 금성동 춘수정 도시공원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어르신 놀이터에는 우선 ‘재미있는 재단’에서 기부 받은 어르신 건강 놀이기구 10여 종이 설치돼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전문 강사가 배치돼 어르신 신체 활동의 중요성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장애물 없는 보행로 정비, 노후된 벤치 및 담장 개선, 어르신 쉼터 조성 등을 통해 어르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인근 주민들과 가족단위 관광객들도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공주시, '충청감영길 역사문화가로 조성'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2020. 07. 15. | 공주시 | 도시정책과

공주시는 '2020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에서 '충청감영길 역사문화가로 조성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감영광장에 조성될 한식담장과 측우기 상징물, 휴게시설, 안내 시설물 등을 충청감영의 정체성을 담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역사문화 가로조성사업 일환으로 포정사 문루에서 목관 아터에 이르는 원도심 중심축에 상징게이트와 전통조경, 가로갤러리, 야간 경관계획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어 보행자 쉼터와 포켓 공간,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충청감영길 활성화를 위한 충청감영 문화제, 도시재생 투어 등도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 충청감영길 역사문화가로 조성사업 계획도



공주시, 공주목 복원사업 본격 착수...2024년 완료

2020. 09. 02. | 공주시 | 문화재과

공주시는 공주목 동헌 이전·복원 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주목 복원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기존 동헌을 해체한 뒤 부재들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복원해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동헌 이전·복원에 이어 2021년부터는 지하주차장과 지하공간을 조성한 뒤 작정 등 3동을 복원하고 공원 등을 조성하면 이번 사업은 모두 완료된다. 공주목 복원 기본 구상은 복원이 가능한 부분은 목관아의 모습으로 복원하고, 복원이 어려운 부분은 문화공간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절충적 복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상공간은 역사성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고층연구 결과 규모와 배치양상 등이 확인된 건물 5개동을 복원하되, 건물 내부는 시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 안내 등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한, 지하공간에 들어설 문화예술 플랫폼은 역사인물전시 및 문화행사와 각종 미디어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 '공주목 복원정비 계획' 조감도



공주시,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탄력...26억 원 추가 확보

2020. 10. 14. | 공주시 | 문화재과

공주시가 '2021년도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에 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였다. 이번 사업은 고도(古都)지구 내 한옥 등을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 총 공사비의 2/3 범위에서 최대 1억 원을 지원해주고, 한식담장은 최대 2천만 원, 가로변 건축물 외관 정비는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한옥의 경우 단순히 주거용 뿐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찻집, 편의점, 음식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관광객 유치 및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시,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 선정

2020. 10. 07. | 계룡시 | 문화체육과

계룡시가 2021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시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174억 원이 소요되는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23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계룡복합문화센터는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거주주 주차장 등 3개 시설을 복합화하여,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건립된다.

▼ ‘계룡시 생활SOC 복합화’ 조감도



금산군, 스마트공원·어린이 물놀이 조성 15억 원 투입

2020. 07. 27. | 금산군 | 기획조정실

금산군은 금산읍 수림공원내 스마트공원 및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충청남도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에 선정돼 3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했다. 스마트공원에는 스마트 가로등, 태양광 벤치, 화장실, 산책로 등이 들어서며 물놀이 공원은 워터파크식 물놀이 시설, 족욕 시설 등 편의 시설과 CCTV보안 시스템, 수질 관리 소독·정화장치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금산군, 2021년 명상숲 조성사업 공모 선정 1억 2천만 원 확보

2020. 08. 07. | 금산군 | 기획조정실

금산군이 '2021년도 명상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 명상숲 조성은 학교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숲을 조성,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생태적 감수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금산군은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금산여자고등학교와 신대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했으며 도의 현장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2020년 명상숲 조성에 금산동초등학교 1개교가 선정돼 6천만 원을 확보한 것에 비해 2021년 사업에는 2개교가 선정돼 예산도 2배로 늘었다.

부여군, 백제금동대향로 활용 랜드마크 조성

2020. 10. 08. | 부여군

부여군이 백제금동대향로를 활용한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이 사업은 부여읍 남령공원에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전망시설을 갖춘 조형물, 휴게시설, 경관조명,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춘다. 이번에 설치하는 전망용 조형물은 부여에서 출토된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를 소재로 국내 최초 역사문화유물과 IT기술을 결합하여 연출하는 새로운 형태이다. 특히 군은 ‘세월이 흘러도 꺼지지 않는 대향로에서 700년 백제를 내려다 보다’라는 주제로 과거 백제와 현재 부여를 넘어 미래를 연결하는 백제 문화유산의 가치를 담을 계획이다.

▼ 부여군 ‘백제금동대향로’ 조감도



서천군, 2021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선정

2020. 10. 05. | 서천군

서천군은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돼 시장 내 공중화장실과 다용도실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서천특화시장은 최근 실시한 ‘국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에 대한 브랜드 빅데이터 평판분석 결과 전국 1,400여 전통시장 중 20위를 차지했으며, 2019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선도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서천군 관광객 필수코스도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 서천군은 이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방문객에 비해 낙후됐던 공중화장실 문제를 해결해 이용객과 상인이 좀 더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양군, 공유공간 활성화 위해 ‘똑똑똑 플랫폼’ 개발 착수

2020. 08. 10. | 청양군

청양군이 ‘똑똑똑 플랫폼’ 개발에 착수한다. 군은 공유공간의 출입편의를 위해 매 시간 주기적으로 비밀번호가 바뀌는 스마트 도어락 개발 및 설치, 도어락과 연결할 수 있는 예약 앱 개발, 홈페이지 및 터치스크린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운영자의 별도 허락이나 방문예약 없이 자유롭게 공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플랫폼이다. ‘똑똑똑 플랫폼’은 특정 단체가 점유하는 기존 관행을 탈피해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청양군은 청년층의 공간 활용 빈도가 획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양군,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사업비 74억 원 확보

2020. 10. 08. | 청양군

청양군의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사업’이 ‘2021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호수를 가로지르는 보행교, 수변 산책로, 미디어 파사드 1곳을 비롯한 야간경관, 포토존 2곳 등을 조성함으로써 관광지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매운 고추 체험나라’ 조성사업, 칠갑호 관광자원 조성사업, 칠갑산 희귀 야생식물 보전사업과 연계돼 어느 곳보다 높은 확장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유아어린이 동반 가족 관광객, 연인이나 부부 등 커플을 위한 ‘타깃 관광지’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홍성군, 홍성명동상가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공모선정 ‘패거’

2020. 06. 12. | 홍성군

홍성군 홍성명동상가가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명동상가는 LED조명, 간접 조명 등 화려하고 다채로운 지역 원도심 상점가만의 분위기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목해 ‘컬러풀 명동상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명동상가상인회는 SNS를 적극 활용하여 상점가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고, 지역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연계해 유명인사 초청강연, 상점가 홍보영상 공모전 등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홍성군,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사업 ‘최종 선정’

2020. 06. 23. | 홍성군

홍성군은 ‘2020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 전략계획수립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공공건축·도시공간의 디자인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 공사사업 전반에 대한 민간전문가 참여를 지원함과 더불어, 지역 주요 거점별 물리적 공간의 디자인 전략 등을 제안하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홍성군, 전국 군단위 유일 “놀이혁신 선도지역” 선정

2020. 06. 02. | 홍성군

홍성군이 ‘2020년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 사업에 전국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에 도농복합형 지역 여건을 고려한 ‘(아이) 신나 YOU(유)’라는 내용으로 공모에 참여했으며, 공모결과 전국에서 10개 지자체가 선정됐고 홍성군이 유일한 군 단위 지역이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된 ‘(아이) 신나 YOU(유)’는 소득기준, 가구특성 등에 제한 없이 홍성군에 거주하는 만 6세~12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이다. 이 사업은 학교, 아동복지시설, 마을 놀이터, 경로당 등에 속련된 놀이 활동가가 파견돼 아동의 발달 정도에 맞춘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다양한 놀이 기회 및 활동을 유도해 건전한 또래 문화 확산 및 사회적응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홍성 남당항 해양공원 및 축제광장에 ‘3미 3색 축제공원’ 선정!

2020. 09. 16. | 홍성군

홍성군이 남당항 배후부지 해양공원 및 축제광장 조성사업 설계공모에서 (주)에코벨리의 ‘3미 3색 축제공원’이 최우수작

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3미 3색 축제공원’은 홍성군 남당항의 3개의 맛(味) 축제(새조개, 대하, 송어)와 3개의 색(色)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상생 사업의 모범으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선형광장을 통해 부드러운 흐름을 유도하고 맛 길, 빛, 놀 길이라는 스토리텔링을 담았다. ①맛 길은 약 9개월간 개최되는 3미 3색 축제의 중심 테마길로 먹거리, 기존상가, 남당항 파시로 연결되고, ②빛 길은 웰컴, 중심 축제광장으로, ③놀 길은 휴게와 놀이 체험으로 연결된다.

▼ 홍성군 ‘3미 3색 축제공원’ 조감도



홍성군, 빈집은 “썩” 정주여건 “썩”

2020. 10. 27. | 홍성군

홍성군은 빈집과 노후화된 주택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①농촌주택개량 사업 72동, ②농촌빈집정비사업 88동, ③주택 지붕개량사업 16동,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124동, ④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21동을 지원했다.

예산군 예당호 야간음악분수 및 느린호수길,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여름시즌 숨은관광지’ 선정

2020. 06. 01. | 예산군

예산군은 예당호 야간음악분수와 느린호수길이 ‘여름시즌 숨은관광지 추천’ 6선에 선정됐다. 2020년 3월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100선에 예당호 출렁다리가 선정되는데 이어 예당호 야간음악분수와 느린호수길도 숨은관광지에 이름을 올리게 됐으며, 예당관광지는 이번 선정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명품 관광지로서의 잠재력과 매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예산군, 골목길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민 호응 높아

2020. 10. 08. | 예산군

예산군이 구도심권의 골목길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골목길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것으로, 군은 그동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이동이 불편해 개선사업 건의가 많았던 지역을 1단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산군은 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한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도블록 정비, 배수로 재설치, 경사로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태안군, 해양 신산업 육성 및 해양환경 개선 ‘신해양 도시 태안’ 실현!

2020. 09. 24. | 태안군

태안군이 ‘더 잘사는 신해양도시 태안’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선다. 우선 ①‘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해양 생태복원 및 보전으로 세계적인 해양 힐링 공간을 조성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②수상 레저보트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레저보트 전용 접안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 ③해양 환경 개선을 통해 ‘청정 태안 바다 만들기’에도 적극 나선다. ④매년 증가하는 해양쓰레기를 파쇄·탈염·분리선별해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양쓰레기 광역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태안군, 지역 예술인 대거 참여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 추진!

2020. 10. 22. | 태안군

태안군이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사업을 추진한다. 태안군은 2019년 9월부터 작가팀을 공모·접수해 사업기획, 연출내용, 공간계획, 기술능력, 수행능력,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심사한 결과,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태안군지부를 사업 작가팀으로 최종 선정했다. 태안의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신해양도시로 비상하는 태안’이라는 제목으로

군청오거리 회전교차로 및 교통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와 태안의 미래 백년을 순항하기 위한 ‘돛’을 모티브로 한 주탑에, ‘미래 첨단 신해양도시 태안’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비상의 의지를 담은 ‘갈매기’ 등의 상징물이 더해질 계획이다.

마을만들기

천안시, 충남형 그린뉴딜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공모 사업’ 선정

2020. 08. 10. | 천안시 | 환경정책과

천안시는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성거읍 천흥 2리와 송남2리 2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사업,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마을 공용시설을 폭염, 폭한 등 기후위기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추진된다. 또한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고효율 조명기기(LED) 교체, 쿨루프 시공, 노후보일러 교체·배관청소 등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천안시 입장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선정

2020. 09. 11. | 천안시 | 농업정책과

천안시는 ‘2021년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입장면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지역 잠재력과 정체성을 살려 문화·복지시설 확충, 경관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실시한다. 기본구상으로는 다가치 행복센터를 조성해 독서, 힐링, 건강교실 등 다가치 키움, 다가치 배움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다문화배움장, 소프트웨어교육, 프로그램 리더 교육과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주민 힐링공간 제공 및 경관 개선을 위해 입장천 친수구역을 활용한 다우리공원을 조성한다. 다우리공원에는 산책로와 수변

데크 등이 설치돼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이밖에 입장시장 주변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으로 입장 5일장 이용률을 높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주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3곳 선정

2020. 09. 08. | 공주시 | 산림경영과

공주시는 2020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3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은 유구읍 녹천1리 마을과 탄천면 장선2리 마을, 반포면 상신리 마을로, 시는 이들 마을에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을 수여했다. 이들 마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인 2월부터 5월까지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마을주민 전체가 자발적으로 녹색마을 서약을 성실히 이행했다. 특히,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과 기타 생활쓰레기 소각 안하기에 동참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등 공주시의 산불예방 우수 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보령 성주4리 먹방마을,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전국 1위

2020. 09. 28. | 보령시

보령시는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성주면 성주 4리 먹방마을이 문화·복지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먹방마을은 마을 중장기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고, 2017년에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선정돼 교류센터 신축과 동아리 활성화, 축제개발 등을 통해 마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왔다. 특히, 마을주민들이 배우가 되는 인형극단을 만들어 양성평등을 주제로 지금까지 82회 공연을 펼치며 전문 극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보령지역 최초로 동거동락방 공동홈을 조성하여 독거어르신들께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꿈이 있는 먹방마을 영농조합을 설립해 버섯재배로 마을자립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오고 있다.

금산군,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동상 입상

2020. 09. 29. | 금산군 | 기획조정실

금산군이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지역개발사업 분야 동상을 수상했다. 군은 금산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일상에서 즐기는 삼락(蔘藥) 공동체’ 사업 목표를 갖고 금산시장 창업골목 조성, 문화배달부 양성 및 운영, 야시장 조성, 주민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등 금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민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동아리 발굴을 추진했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추진위원회를 조직, 주민들의 주체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에 평가가 높았다.

부여군, 모두가 꿈꾸는 마을만들기 창안학교 연다

2020. 09. 23. | 부여군

부여군에서는 모두가 꿈꾸는 마을만들기의 길라잡이 역할을 자임할 창안학교를 연다. 이번 창안학교는 마을만들기에 관심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론적인 교육이 아닌 실습 위주의 실천적인 과정을 진행하여 역량 있는 마을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총 4회(총 11시간)에 걸쳐 사업 발굴 요령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학습하게 한 후 사업계획서 발표회에 참가하여 발표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창안에 대해서 부여군은 총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내포신도시 홍복읍, 우리마을? 우리사가 환경정리는 우리 손으로!

2020. 07. 03. | 홍성군

홍복읍 소재 내포신도시 이주자 택지 애향 상가 회원 30여 명은 장마를 앞둔 폭염 속에서 우리 마을, 상가 주변의 도로, 공원 등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하는 환경정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상가 주변 및 마을 도로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환경 정리에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하여 번영 회원들은 서로 힘을 합쳐 환경정리에 매진했다.

청양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순조롭게 추진

2020. 07. 17. | 청양군

청양군이 마을대학 수료생 31명을 배출하고 마을자원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새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과 민관 협치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5대 분야 12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역량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다. 청양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은 ‘함께이음’ 정책을 축으로 공간이음, 사업이음, 사람이음을 도모하고 있다.

예산군,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90억 원 선정

2020. 06. 26. | 예산군

예산군은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공모사업에 삽교읍과 봉산면 2곳 모두 선정되었다. 삽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다리, 삽교’를 비전으로 ①중심지 내 세대돌봄문화센터 조성, ②삽교시장 만남의장터 조성, ③삽다리 안심+ 마을길 조성, ④배후마을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사업이다.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지역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봉산면 만들기’라는 비전으로 ①문화향유센터(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②건강체육센터(농촌복합체육관) 리모델링, ③공동체 활동마당 및 봉산살이센터 조성, ④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 ⑤지역역량강화사업이다.

예산군, 마을공동체정원 사진 및 그림 공모전 진행

2020. 10. 29. | 예산군

예산군이 ‘마을공동체정원 사진 및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당초 이번 행사는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주민들을 위한 화합의 장으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비대면 공모전으로 전환됐다. 공모전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으로 구분해 진행되었다.

태안군, 해양수산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4년 연속 선정!

2020. 06. 04. | 태안군

태안군이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 원북면 청산1리의 ‘어촌종합개발사업(2021~2025)’은 청산센터, 해양레포츠시설, 갯벌체험장, 감태가공센터, 사계정원, 해상낚시터, 나루터주막 등의 다양한 소득창출 사업과 특색 있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안면읍 창기7리의 ‘어울림마을사업(2021~2025)’은 총 42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커뮤니티케어홈, 굴·바지락 공동작업장 현대화, 굴·바지락 가공공장, 귀어인을 위한 ‘수해마을 사랑방’ 등 원주민과 귀어인의 상생 및 소득창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공주시, 2019년 7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2020. 06. 26. | 공주시 | 도시정책과

공주시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에 인허가를 신청하는 업주는 민원 접수부서(종합민원실 등)에 민원신청 접수 전 반드시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에 간판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을 안내받아야 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 인쇄 및 출판업 등 간판설치가 필요한 모든 인·허가 업종이다.

논산시, 시민 편의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안내판 설치 확대

2020. 10. 22. | 논산시 | 민원토지과

논산시가 도로명주소 홍보 안내판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도로명주소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10월 보행자들이 많은 논산 15호 어린이 공원 외 9곳에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춘 신규 도로명주소 홍보 안내판을 설치 완료했으며, 이후 2차

례에 걸친 현장점검을 통해 신규 설치된 도로명주소 홍보 안내판의 위치와 안정성 적합 여부 등을 확인했다. 시는 가시성이 좋은 곳에 신규 도로명 주소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쉽게 익히고, 사용하는 데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논산시 도로명주소 홍보 안내판



계룡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나선다

2020. 10. 07. | 계룡시 | 문화체육과

계룡시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보행 및 차량 신호등 개선,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안전속도 5030 공사 추진, 엄사중학교 일대 통학로 정비 등에 나설 예정이다. 각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차량 신호등 노후화로 LED 일부가 점등되지 않는 신호등을 신속히 교체하고, 횡단보도 신호등에 잔여시간을 표시해 보행중 신호가 변경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고 많은 곳 또는 예상 지역에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로 차량 서행을 유도해 사고 발생을 줄일 예정이다.

서천군, 저단형 공공현수막 게시대 시범 운영

2020. 10. 21. | 서천군

서천군은 2019년 11월부터 서천 특화시장 앞 대로변과 인근 지역 6개소에 저단형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차도와 보도 사이 경계선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저단형 게시대의 도입으로 쾌적

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현수막 단속의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서천군 저단형 공공현수막 게시대 시범 운영



청양군, 새 관광캐릭터 개발에 역량 집중

2020. 06. 18. | 청양군

청양군이 새 캐릭터와 명칭을 찾기 위해 잔걸음을 떼고 있다. 용역을 통해 제시된 캐릭터 후보군은 모두 4가지로 ‘깻잎머리소녀 청양이’, ‘시원 상괘 청량이’, ‘매력 청년 청양군(君)’, ‘푸른 양(羊) 청양이’ 등이다. ‘깻잎머리소녀’는 한자 靑陽(청양)이 참깻잎을 한약재로 쓸 때 부르는 이름인 데서 착안한 명칭이고 ‘청량이’는 청양과 발음이 유사하면서 청량음료 같은 자연환경을 부각한 명칭이다. 또 ‘청양군(君)’은 착한 눈망울에 친절하고 순수한 청년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을 활용한 이름이고 ‘청양(靑羊)’이’는 온순하고 순결한 양과 청양산 농산물을 연결시킨 이름이다.

청양군, 그늘막쉼터 6곳에 ‘쉼표의자’ 설치

2020. 07. 17. | 청양군

청양군이 그늘막쉼터 6곳에 ‘쉼표의자’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늘막 1곳에 2개씩 설치된 쉼표의자는 4계절 이용이 가능하며, 필요할 때 적은 힘으로 손쉽게 펴서 앉을 수 있는 접이식이다. 재질 또한 고급 목재를 사용해 여름철 뜨거움과 겨울철 차가움을 최소화하고 디자인도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 청양군 그늘막쉼터 ‘쉼표의자’



홍성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도전한다!

2020. 07. 29. | 홍성군

홍성군이 교통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고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스쿨존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기 12개소, 옐로카펫, 표지판, 황색복선 도색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학교 정문 앞 도로이며 2019년 8월 3일부터 주민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홍성군 교통시설물 확대설치



홍성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작가팀 모집

2020. 08. 21. | 홍성군

홍성군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작품설치형(벽화·조각·회화·미디어아트 등), 문화적

공간조성 및 전시형, 도시재생형(거리 편의시설 조성 등),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형, 지역기록형(사진·다큐멘터리), 복합추진형(다수유형 혼합) 등 6개 유형의 공공미술부문에 참여할 작가팀 37명을 모집한다. 작가팀은 대표자(기획자, 책임작가) 및 작가, 행정 지원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홍성군, 평생교육 브랜드 이미지(BI) 수상작 선정!

2020. 09. 03. | 홍성군

홍성군은 평생교육 브랜드 이미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홍성군 평생교육 브랜드 이미지(BI)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홍성군평생학습센터, 홍성군평생학습카페, 홍성군성인문해교육, 홍성군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등 4개 분야에 작품이 접수됐다. 홍성군평생학습센터 분야 최우수상은 활짝 펼쳐진 책을 통해 누구나 열정만 있으면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별의 형상은 모든 이의 꿈과 희망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 홍성군 평생교육 브랜드 이미지(BI)



홍성군, 폐현수막 장바구니로 ‘재탄생’

2020. 10. 06. | 홍성군

홍성군이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제작해 전통시장에 배부하는 업사이클 장바구니 나눔을 진행하며 환경보호와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홍성 상설시장과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폐현수막을 재활용(업사이클)하여 제작한 ‘그린 장바구니’ 700장을 전달했다. 군은 현수막을 장바구니로 만들어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의 높은 호응 얻었으며 적극행정 추진을 통한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 홍성군 폐현수막 장바구니



태안군,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 공모 선정 ‘국비 1억 8천만 원 확보’

2020. 07. 09. | 태안군

태안군이 ‘2020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1년 말까지 태안터미널에서 우체국 사거리까지 약 730m 구간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 횡단보도(21개소)와 표지판(38개)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1년 태안군 전력지중화 사업’과 연계, 자전거 안전사고에 큰 위협이 되는 기존 자전거도로 내 전신주 및 가로수 등을 정비해,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